수험생 돕는 아이디어 상품

메트로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제3089호 www.metroseoul.co.kr

청춘스타 스크린서 맹활약

美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민주당 텃밭까지 장악 미국 공화당의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후보가 11·4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앤서니 브라운 후보를 물리친 뒤 5일(현지시간) 아나폴리스에서 자축 행사를 열어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왼쪽). 브라운 후보는 선거 직후 칼리지 파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데 승복 연설을 한 뒤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강세 지역은 물론 메릴랜드주를 비롯한 민주당 텃밭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상·하 양원을 장악했다. <관련기사 4면>

/AP 연합뉴스

"단통법은 실패했다"… 한목소리

총리와 이통3사 사과 불구 후폭풍 갈수록 확산
예고된 '아이폰6 대란' 유통점에게만 책임 전가

"비싸게 팔면 합법이고 싸게 팔면 불법이란 말"

"소비자에게 조금 더 싸게 팔고자하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가 되고 공시 지원금만을 할인해 판매하면 소비자에게 폰팔이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현실이 싫다. 비싸게 팔면 합법이고 싸게 팔면 불법인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 '아이폰6 대란'으로 퇴출 조치된 휴대전화 유통점주

"아이폰6 출시로 인해 경쟁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시장이 혼탁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실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 이통 3사 '아이폰6 대란' 사과문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단통법 부작용에 따른 혼란을 사과했지만 네티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차별 없는 이용자를 위한 단통법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안명학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단통법에 대한 질문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먹잇감으로 삼아 갖고 놀자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다. 최근 KAIT에서 폰파라치제,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판매점 사전승낙제 등 휴대전화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안 회장은 "고객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동사가 유통점에 리베이트 규모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결국 유통점 입장에선 고객 유치를 위해 이를 고객지원금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단통법은 과거처럼 보조금 상한선이 존재한다. 단통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명 '공짜폰' '버스폰' 등은 사라졌다. 결국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느껴지는 국민들은 단통법이 취지와 다르게 가계통신비 인상을 야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 회장은 "휴대전화 하나 파는데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 시장이 어떻게 활발히 돌아가느냐"라며 "정부는 조금 더 지켜보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전화 유통점들의 피해는 산더미처럼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실시에 나서는 한편, 해당 이동사에 과징금 부과, 유통점에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당시 몇 시간을 줄을 서 가며 아이폰6 예약가입에 나선 고객들은 결국 다음날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통 3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폰6 출시로 인해 경쟁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시장이 혼탁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실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부 이통사는 불법영업에 관련된 휴대전화 유통점에 대해 전산정지·단말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늘리며 사실상 '아이폰6 대란'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일부 유통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네티즌들도 "판매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해 보인다" "공시 지원금은 늘리지 않은 채 유통점에 리베이트만 높이면 결국 불법영업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2면>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엔저 영향 일본여행 크게 늘어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일본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투어에서 예약한 후 일본으로 떠난 우리나라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5% 증가했다.

모두투어네트워크의 올 10월 일본 송출객도 2013년 10월보다 120% 성장했으며 인터파크투어의 수요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뛰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위축됐던 수요가 엔화 약세로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 정부가 쇼핑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외국인 면세제도를 개정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당분간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겨울철 일본 온천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지팡이 없이 걷는 김정은 북한이 3~4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열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제1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 다리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제1위원장이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단통법 혼란 죄송합니다"

정홍원 총리 "상황 지켜봐 달라"… '아이폰6 대란' 엄정 조치

정홍원(사진) 국무총리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에 대해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호갱'(호구 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법의 취지가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뜻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이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보조금 제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통사들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게 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밝히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조금을 더 늘려 출혈 경쟁을 하기보다 통신 요금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의료사고 막을 특단책 내놔야

기자 수첩
황 재 용 <생활레저부 기자>

故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료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의료사고가 맞다면 유족들은 그만한 보상을 받게 되지만 S병원은 적지 않은 타격이다.

하지만 일부 의료사고 피해자는 이번 신해철 사망 논란을 두고 그가 유명인이라 여론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나마 되물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높아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과 달리 현실에서의 의료사고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재앙과 같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이 결코 아니다.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뿐이다.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환자와 의료기관 간 중재를 주선하기 위한 기관이지만 그 역할은 충분치 않다. 사고를 낸 의료기관들은 보통 자신의 이미지와 언론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중재를 거부한다. 문제는 여기서 중재원의 역할이 끝난다는 사실이다.

또 이런 경우 의료사고의 칼자루는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에서도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지만 피해자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상대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소송이라는 특성상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난관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의료기관들은 대형로펌을 방패로 사용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의료사고 이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시급하다는 소리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의료기관의 각성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길 바란다.

선거구 위헌 판결에 머리맞댄 여야 농어촌 의원 새누리당 황영철·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등 여야 농어촌지역 의원들이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헌재의 선거구 위헌 관련 티타임 간담회를 열고 인구를 중심으로한 수도권 위주의 판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정희수·장윤석·이철우·황영철·김종태·박덕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강동원·김승남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376조 '슈퍼 예산' 여야 샅바싸움

오늘부터 심의… 기한 내 합의 쉽지 않아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6일 시작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되는 첫 해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12월 2일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예결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소관 예산을 곧바로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겠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처리 시한인 11월 30일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시한보다 충실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요구 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여야의 입장을 보면 실제로 기한 내 합의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 예산'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이같은 예산 편성에 따라 내년 재정 적자는 3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야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당정은 또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부르며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내년 2월 전당대회 가닥

●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년 2월 초에 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당직자는 5일 "사전 예약 문제와 설 연휴 등을 감안해 내년 2월 8일 또는 하루 전인 7일에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음주쯤 전대준비위를 구성해 대회일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내일 '공투본'과 대화… 의견 수렴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김무성 대표는 5일 "7일 오후 4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그날 시간을 무제한 할애해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방산 비리 당 태스크포스 구성"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 비리와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군납 방산 비리는 온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대단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방산 비리 척결과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대권 대망론' 사실 아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자신의 대권 야망론이 여야 불문하고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반 총장은 4일 사무총장실 명의의 언론 대응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반기문 총장의) 향후 국내 정치 관련 관심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불편부당한 위치에서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을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국내 정치 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바, 앞으로 여론조사를 포함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조현정기자

issue&view

9시 등교제 논란 속 확산 전망

서울 '9시 등교' 혼란 더 클 듯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논란이 됐던 '9시 등교'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내년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는 강력하게 '9시 등교'로 통일하도록 권장하고, 중·고교는 학교별 토론회를 연내에 열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경기도 등 지역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자치와 건강권' 9시 등교를 두고 충분한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토론을 통한 자율적 도입'을 언급했지만 일선 학교들은 교육청의 지침이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가장 먼저 9시 등교를 시행한 경기도에서는 현재 10월 말 기준 초·중·고등학교 전체의 95.9%가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사례를 미뤄 보아 서울도 90% 이상의 학교가 9시 등교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한지 두달이 지났지만 경기도에서는 9시 등교를 놓고 여전히 찬반논란이 팽팽한 상황이다.

반대하는 경기도 학생들은 시간표가 바뀌면서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게 되는 등 생활리듬이 깨지고 수업이 늦게 끝나 오후에 여유가 없어졌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9시 등교 정책이 성급하게 시행되다 보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문제와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맞벌이 부부 비율이 경기도보다 더 높아 시행하게 되면 경기도 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보다 맞벌이 비율 높아
광주·제주 제도 시행 '만지작'
"학교측에 충분한 자율권 줘야"

또 서울은 경기도 보다 통학거리가 짧아 효과는 더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9시 등교' 추진입장을 밝히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도도 '9시 이후 수업'을 권장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강릉의 율곡중학교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9시 등교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충북도는 교육청이 '0교시 수업'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상당수 학교가 '9시 등교'는 아니지만 대부분 오전 8시30분 전후로 등교를 늦춘 상태다.

이밖에 광주와 제주에서도 '9시 등교' 시행을 검토 중이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9시에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9시 등교제가 잘 되는지 내심 있게 살펴보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 공약이라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충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 앞바다서 발굴한 백자 문화재청은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발굴한 조선백자 등의 문화재를 5일 일반에 공개했다. 사진은 태안 근흥면사무소에 전시된 발굴 조선백자. /연합뉴스

시간제 보육시설 37→67곳으로

서울시, 내년까지

서울시는 현재 37개소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올 연말까지 42개소로 늘리고, 내년에는 67개소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외출을 해야 할 때 생후 6~36개월 미만 아이를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로 맡길 수 있는 시설이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하고, 3년 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를 채용해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동시에 장난감·도서대여, 놀이프로그램, 전문적인 육아상담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은 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윤다혜기자

담뱃값 인상, 결국 국회에 달렸다

여의도 패트롤

담뱃값 인상은 결국 국회에 달렸다.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인상폭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라도 통과가 어렵다.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보좌진들의 입장은 어떨까. 지금은 없어졌다지만 '연(煙)사랑'이라는 담배친목모임이 18대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담배를 사랑하는 보좌진이 많다.

의원회관의 흡연율도 다른 건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건물 내 흡연이 아직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회관 내부 곳곳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할 수 있다. 비상구 계단과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금연'이라는 표시가 무색하게 꽁초가 쉽게 발견된다.

특히 의원들의 차량을 운전하는 수행비서들이 대기하는 지하1층은 꽁초 쓰레기가 쌓여 있다. 늦은 밤 의원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광경도 쉽게 볼 수 있다. 가끔 친한 기자들이 방문하면 같이 의원실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따라서 여야 구분없이 보좌진들은 담뱃값 인상은 못 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금연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담뱃세로 해결하려는 꼼수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정부만 아직 짐짓 모르쇠다.

담뱃값이 오르면 불법 유통되는 면세담배, 저가 담배, 가짜 담배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불법 담배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뻔하지만 결국엔 인상되리라 본다. 야당 당론은 반대지만,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인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발표한 세월호법 합의 사항 전문을 보면 '소방안전세' 도입이 생뚱맞게 들어있다. 여야 지도부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증거다. 이제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밖에 도리가 없다. 이미 일부 편의점은 품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담배를 1보루씩 팔지 않고 1갑씩 팔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1인당 1보루를 넘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건수가 최근 급증했다. 관세청이 지하 경제 양성화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그동안 눈감아 주던 휴대품 통관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몇년 전처럼 생각하고 명품백이나 담배, 양주를 면세 한도로 초과해 들고 오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점점 살기 팍팍해진다.

담배는 정부안대로 2000원 오를까? 1500원선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다. 국회에서 500원을 깎도록 정부가 미리 생색을 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담뱃값 인상을 위한 정부의 포석이고 일종의 '쇼'라면 음모론일까? /유보좌

고 신해철 조직 부검 의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 신해철씨의 소장 조직에 대한 추가 부검을 의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산병원에서 제출받은 신씨의 적출된 소장 조직을 4일 국과수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장 조직에 대한 추가 부검을 의뢰한 이유는 신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구멍이 수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겼났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신씨의 소장을 추가로 부검한 뒤 최종 부검결과와 종합해 통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의 응급수술을 집도한 아산병원 의료진 2명을 서면조사하고, 이번 주중으로 S병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아산병원은 응급 수술 당시 신씨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3일 양천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진행된 부검에서는 구멍이 확인되지 않았다. /윤다혜기자

'음란행위' 김수창 처벌 시민위서 결정

검찰, 공정성 고려 차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정한 결정을 위해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검에도 시민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시민위원이 김 전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위촉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3명으로 구성된 광주고검 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기소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김 전 지검장은 8월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죽은 악어를 '미라'로

metro France

박물관 제작과정 공개

Louvre-Lens : une momie de cr
restaurée sous les yeux du publ

프랑스의 한 박물관에서 죽은 악어를 미라로 만드는 과정을 일주일간 공개한다.

3일부터 루브르 랑스는 악어를 미라로 만드는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오는 12월부터 열리는 '동물과 파라오' 특별전에 공개될 악어 미라다.

견학을 신청하면 15명씩 그룹이 되어 작업실 맞은편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통유리를 통해 두 전문가가 진행하는 악어 미라 보수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으며 질문도 가능하다.

죽은 악어는 5일간 외과용 수술기구를 이용해 내부 장기를 빼내고 미라가 되는 준비 과정을 거친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악어의 몸을 닦고 마른 수건으로 확실하게 물기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

전시 담당자는 특별 공개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미라 작업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간 알지 못했던 전문 직업을 알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엔 총 430여종의 동물이 미라 형태로 소개될 예정이다.

/마티유 파구라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1년에 한 번 이승 방문

metro Mexico

'죽은자들의 날' 화제

Ecos del festejo
a los muertos...

핼러윈 데이에 이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멕시코 '죽은 자들의 날' 축제가 화제다.

멕시코인은 죽은 영혼이 일년에 한 번 이승의 가족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세상에 내려온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화려한 해골 분장을 하고 축제 기간 망자를 맞이한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 패러디, 좀비 달리기 대회 등 이색 이벤트도 함께 열렸다.

한편 '죽은 자들의 날'은 전통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다.

/정리=조선미기자

미국 F-35C 전투기 항모로 '훨훨'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에서 최신예 전투기 F-35C 조인트 스트라이크 전투기가 착륙할 항공모함 니미츠호로 접근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美 8년 만에 여소야대

중간선거 공화당이 상·하원 석권… 한반도 정책은 변화 없을듯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석권했다.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이 열리게 됐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50분 현재 중간 개표결과, 상원 경합 주13곳(민주당 소속 10곳, 공화당 소속 3곳)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 공화당이 승리했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을 지킨 데 이어 상원에서도 과반 달성에 필요한 6석을 추가로 얻었다. 과반을 넘겨 최소 52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의석이 100석인 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55석, 공화당 45석이다. 이번 선거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과 보궐선거 대상을 포함한 총 36곳에서 치러졌다.

공화당은 경합 주 13곳(민주당 소속 10곳, 공화당 소속 3곳) 가운데 켄터키와 캔자스, 조지아 주 등 텃밭을 모두 지켰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역이었던 아칸소와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사우스다코다, 콜로라도 주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켄터키 주에서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앨리슨 런더건 그라임스 후보를 큰 격차로 제쳤다. 당초 접전이 예상됐던 캔자스 주에서는 공화당의 팻 로버츠 후보가 무소속 그레그 오먼 후보를 가볍게 눌렀다.

민주당 우세로 분류됐던 뉴햄프셔 주는 예상대로 민주당의 진 샤힌 후보가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승리가 당연시되던 버지니아 주에서는 개표 초반 공화당의 에드 길레스피 후보가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을 앞서며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워너 의원이 막판 뒷심을 발휘, 수성할 전망이다.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최소 226석(과반은 218석)을 얻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한다. 공화당은 하원을 수성하고 상원까지 탈환,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이래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맞았다. 특히 공화당은 중간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덕분에 2016년 대선 국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반면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된 민주당은 선거패배 책임론 속에서 지도부 교체 등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은 급격한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해외 문제와 달리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파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한 대북억지와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대형 무기도입 사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 차가 별로 없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유가 얼마까지 떨어질까

미국 vs 사우디 주도권 싸움 본격화

전세계 석유시장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 미국이 셰일(혈암)유 생산을 늘리자 사우디가 원유가 전격 할인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가는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자 사설을 통해 사우디가 미국에 원유를 싸게 팔겠다고 전격 제의한 것은 시장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전 포고'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 공급되는 중동 원유와 급속히 증산돼온 셰일유 간의 가격 전쟁에 불을 붙였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미국과 사우디가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의 하이라이트인 절벽 끝으로 자동차 몰기와 같은 극한 대결에 들어갔다고 WSJ은 설명했다.

압달라 엘-바드리 OPEC 사무총장은 "브렌트유가 배럴당 85달러대를 유지하면 OPEC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 "가격 하락에 셰일유가 먼저 충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도 "사우디의 전격 조치로 말미암은 유가 하락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의 가격 공세로 미국 서부텍사스유(WTI)와 북해 브렌트유 선물은 4일 배럴당 75 달러대와 82 달러대까지 하락했다. 이는 모두 지난 4년여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블루오션 리더십'으로 돌파구 찾아야"

금융CEO, 창조적 열정과 잠재력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박경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금융기관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인력의 창조적 열정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블루오션 리더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금융가 사람들

■ 박경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저성장 시대를 맞은 금융권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블루오션 리더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박경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산업과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등의 성장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위협이 다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기업은 예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자원과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위기에 대해 모두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뚫고 나갈 혁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여기에는 리더십 부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김위찬 교수와 르네머본 교수가 제시한 블루오션 리더십에서 돌파구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블루오션 리더십'이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는 '블루오션' 전략에 실행을 합친 것으로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목표로 한다.

기존 리더십과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블루오션 리더십은 조직 내 구성원 모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금융이 초경쟁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리더십 부재는 자칫 조직 전체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인력의 창조적 열정과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블루오션 리더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금융권은 수장들이 대폭 물갈이됨에 따라 CEO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다. 앞서 KB금융지주는 윤종규 회장을 내정했고 씨티은행 역시 박진회 은행장을 선임했다. 이 밖에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우리은행장, 신한은행장 등의 후임과 연임 여부도 남아 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경영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일선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의 동기부여와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기업 리더십의 현주소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블루오션리더십을 도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전체 리더들을 경영진, 본부장급, 실장급 등 4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각자 어느 부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캔버스에 시각화해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가져야 할 동기부여와 대안 프로파일을 그룹별로 개발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금융기업의 그룹별로 블루오션 리더십 지수를 만들어 실행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중요한 활동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면 금융전문인력들의 숨겨진 잠재력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농협銀-인도 AXIS은행, MOU 체결

NH농협은행은 5일 인도 AXIS은행과 손잡고 인도 진출과 한국 거래 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현지 진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또 ▲양국 간 송금거래 확대와 무역금융 업무협력 ▲상대은행 고객 금융서비스 제공 ▲상호간 인력 파견과 비자취득 협조 ▲금융노하우와 금융환경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인도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력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정모 농협은행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농협은행의 인도 진출을 위해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내년에 인도사무소 개설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행장은 이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당국의 신뢰를 획득하고 현지 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해 앞으로 영업기구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XIS은행은 2402개의 점포와 4만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인도 4위은행(민영은행 3위)이다. /백아란기자

이정모(왼쪽) 농협은행 부행장과 인도AXIS은행 시드핫 라쓰(Sidharth Rath) 자금 및 국제금융 담당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장병 대상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신한은행은 5일 군 장병들의 금융거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기계화보병사단을 찾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신한은행 이동점포인 뱅버드에서 군장병들과 함께 금융상담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가족사랑 보험설계 이벤트' 풍성

국내 최초 인터넷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11월 한 달간 '가을애(愛) 가족사랑 보험설계 이벤트'와 '연금·연금저축 보험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가족사랑 보험설계 이벤트'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상품의 보험료 확인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회사는 참가자 중 총 213명을 추첨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만원권(3명) ▲CJ외식 상품권 10만원권(10명)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200명)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10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연금저축보험 가입 이벤트'는 금융소비자연맹 주최 '2014년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에 회사 상품인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이 선정된 것을 기념해 진행하는 이벤트다.

이번 행사에서 회사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무)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 또는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에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창원 라이프플래닛 마케팅 팀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라이프플래닛의 장점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market index <5일>

코스피
1931.43
(−3.76)

코스닥
540.27
(−1.89)

금리(국고채 3년)
2.09
(−0.01)

환율(원·달러)
1087.00
(+8.90)

스포츠캠과 안경이 하나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서울 국제사진영상프로기자재전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스포츠캠과 안경이 하나로 결합된 피봇헤드 제품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인재 팀워크 중요

●글로벌 인재로 성공하려면 조직 융화·친화력을 갖춰야 한다는 충고가 나왔다.

글로벌 헤드헌팅기업 HR코리아는 직장인 387명을 대상으로 JTBC의 '비정상회담' 출연진 중 같이 일하고 싶은 인재를 물은 결과, 상대를 존중하는 독일의 다니엘 린데만(20.7%)이 1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매사에 긍정적인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몬디(16.9%), 다양한 경험과 재능이 많은 벨기에의 줄리안 퀸타르트(14%), 늘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 가나의 샘 오취리(14%)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함께 일하기 싫은 인재로는 소심해 보이는 일본의 테라다 타쿠야(15.9%)가 꼽혔다.

최경숙 HR코리아 부사장은 "좋은 팀워크와 일하고 싶은 업무환경을 만들 줄 알아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연금복권520 제175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5조	287855
		7조	919507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703683
4등	100만원	각조	04778
5등	2만원	각조	299
6등	2000원	각조	93, 72
7등	1000원	각조	6, 3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화학업종 추락…브레이크가 없다

저유가 시대 배터리 시장 기대감↓…엔저 직격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중국 경제까지 흔들리면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불황의 터널'에 갇혀 있다. 부타디엔 비중이 큰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 등은 가격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삼성토탈은 파라자일렌(PX) 약세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동안 석유화학제품은 설비과잉 우려 속에서도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이 모든 공급을 다 흡수하면서 수익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무한 수요시장이 아니다. 자체 생산시설이 급팽창했고, 경기마저 나빠져 공급과잉에 자체 생산량을 조절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LG화학의 하락 속도는 너무 가파르다. 브레이크가 없는 끝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58만원이 넘었던 주가는 3년 사이 40만원이 빠지며 지난 4일 18만원 선이 무너졌다. 최근 한달을 놓고 봐도 9월25일 27만2500원을 기록한 이후 9만원 가량이 빠졌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달새 무려 6조원 넘게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이는 전체적인 석유화학업종의 불황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LG화학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반작용이 컸고 그만큼 불안감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유가에 민감하다. 석유파동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대체 에너지를 찾았다. 정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연구와 투자를 독려했다.

LG화학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나 ESS 시장의 선두 주자다. 최근 GM과 볼보, 르노 등 주요 완성차 업체에 자사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도 손잡고 내년 출시될 쏘나타와 K5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자사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중국 남경 신강 경제개발구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고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32MWh 규모의 ESS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 세계 유가시장은 북미발 셰일가스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며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저유가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 투자 유망 업종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실제로 LG화학은 지난달 20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5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나 떨어졌고, 매출도 같은 기간 3.4% 후퇴한 5조6639억원에 그쳤다. 실적 발표 다음날 무려 3만2000원(14.16%)이 하락한 19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어 이틀 뒤인 23일 추가로 1만500원(5.41%)이 떨어진 18만3500원에 마감했다.

하락폭이 크자 지난달 27일 잠시 반등하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이번엔 '엔저'가 직격탄을 날렸다.

화학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은 정보전자소재, 2차 전지 소재 등이다. 이 분야 제품들은 엔저 효과를 힘입은 일본업체의 가격 공세에 경쟁강도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LG화학 주가는 3일 개장하자마자 가파르게 하락하며 1만원 넘게 떨어졌고, 4일 18만원선이 붕괴한 17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5일 역시 5000원이 추가 하락하며 17만4000원에 마감했다.

메리츠종금증권 황유식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이미 계약한 2016년형 모델 수주 물량은 있지만, 추가 수주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과 2차전지 등 역점 사업의 부진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확바뀐 '삼성 고시' 삼성그룹이 '직무적합성평가' 도입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채용제도를 발표한 5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의 SSAT 관련서적 코너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신입 채용제도 대폭 개편

직군별로 다양화…직무에세이 제출해야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삼성그룹 이준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5일 채용제도 개편 브리핑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 위주의 획일적 채용 방식을 직군별로 다양화하는 3급 신입사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 채용제도는 내년 하반기 공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우수직원의 업무성과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직군별로 성공요인에 차이가 있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이에 삼성은 다양한 직군별 직무 역량 평가를 위해 직무적합성 평가를 도입하고 창의성 면접을 추가하기로 했다.

직무적합성 평가는 지원할 때 '직무 에세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과해야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 응시할 수 있다.

결국 삼성의 채용 단계가 'SSAT-실무면접-임원면접' 에서 '직무적합성 평가-SSAT-실무면접-창의성면접-임원면접'으로 늘어난 셈이다.

삼성 측은 "직군별로 필요한 직무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며 출신대학 등 직무와 무관한 이른바 스펙은 일체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과 기술, 소프트웨어 직군은 전공능력 위주로 평가할 예정이다.

영업직과 경영지원직은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 성실한 지원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은 창의성 면접을 새로 도입한다. 창의성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위원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논리전개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

직무 경험 없으면 삼성취업 힘들다

직무 경험이 없는 완전 '초짜' 구직자는 삼성그룹 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

5일 삼성그룹이 발표한 채용제도 전면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정 수준 성적과 어학 점수만 갖추면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볼 수 있었던 기존과는 달리 직무 에세이를 통한 직무적합성 평가라는 과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직무 에세이는 지원하는 직무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쓰는 방식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표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련 직무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합격·불합격을 가른다는 이야기다.

SSAT를 통과하면 볼 수 있는 면접 전형도 실무면접→창의성면접→임원면접으로 복잡해졌다.

이에대해 고려대 재학 중인 김모(26)씨는 "SSAT만 준비하면 됐던 기존과는 달리 이젠 인턴 경험까지 쌓아야 삼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구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Light Up Tomorrow
창조의 빛 미래의 빛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Dates : July 3rd ~ 14th, 2015(12days)
Venues : Gwangju World Cup Stadium and other stadiums

기간 : 2015. 7. 3 ~ 14(12일간)
장소 :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Suzy (Promotional Ambassador of 2015 Gwangju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 수지

Global Premium Partner

우리카드 '로얄블루 시리즈' 출시

차별화된 혜택·프리미엄 서비스로 승부

우리카드는 5일 차별화된 혜택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담은 '로얄블루 시리즈'(사진)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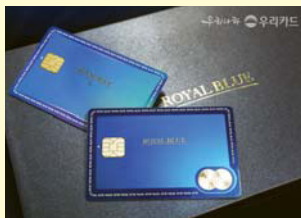
슈퍼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해 나온 이 상품은 단 1000명에게만 한정 발급되는 '로얄블루1000'과 커리어우먼을 위한 '로얄블루L', 70만원 상당의 기프트가 제공되는 '로얄블루'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로얄블루1000'은 연회비 100만원으로 항공권과 국내외 호텔 무료숙박권, 100만원 상당 선택형 기프트가 더해진 '트리플 리워드' 서비스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사용 실적별로 약 60만~20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는 '트리플 초이스'도 추가됐다. 아울러 아트갤러리의 일대일 도슨트, 명품샵 점장의 쇼핑 에스코트, 레스토랑 쉐프·매니저의 의전 서비스 등을 컨시어지 전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연회비 30만원의 '로얄블루'는 국내선 동반자 왕복항공권과 국내외 호텔 2박시 1박 무료, 그리고 20만원 이상의 선택형 기프트가 더해져 최대 7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택형 기프트는 ▲아시아지역 동반자 항공권 ▲신라면세점 20만원권 ▲특급호텔 2~3인 뷔페권 등 6가지 기프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대한항공형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형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며, 해외·면세점·여행사·항공업종 등 특별 가맹점은 1000원당 2마일이 제한 조건 없이 제공된다.

아시아나 플러스형의 경우 특별 가맹점 적립은 동일하되 1000원당 1마일 적립대신 연간 이용액 구간별로 20만~100만원 상당의 기프트가 별도로 차등 제공된다.

아울러 호텔·공항·골프에 특화된 서비스인 '트리플 베너핏' 서비스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트리플 베너핏'은 ▲특급호텔 F&B 할인혜택 ▲전세계 700여개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Priority Pass카드 ▲공항·특급호텔 무료 발렛파킹 ▲골프장 예약 결제시 5~40% 할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 CEO과 리더형 커리어우먼을 위한 '로얄블루L'은 '로얄블루'와 같은 혜택 구성에 백화점·미용업종 혜택이 추가됐다.

한편 우리카드는 로얄블루 출시를 기념해 내년 6월말까지 전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건당 5만원 이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내년 3월말까지는 100만원 이상 이용고객을 추첨해 북미항공권, 호텔숙박권, 모바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외환보유고 심상치 않네…"

달러 강세 영향…금융위기 후 첫 석달 연속 감소

증가추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석달 연속 감소하고 있어서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637억2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억8000만 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4~11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올해 8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은 측은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보유 외화자산 가운데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결정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시동을 걸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유럽·일본의 통화가치는 떨어졌다.

10월 중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0.7%, 파운드화 가치는 1.5% 각각 하락했다. 엔화 가치는 0.1% 떨어졌다. 이들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자 달러화로 표시하는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 연속 외환보유액이 줄었을 때는 자금 유출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달러화 환산 과정에서 보유액이 준 것으로 집계됐을 뿐이고 감소폭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 강(强)달러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달러의 강세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달러화 가치가 이미 주요 통화에 대해 수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지만, 투자자들은 경제 펀더멘털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고려해 추가적인 달러 강세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프리 유 UBS 선임 외환 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면서 "달러는 여전히 싸고, 달러 가치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자산 유형별로 보면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91.3%를 차지하는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321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5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예치금(5.8%)은 211억8000만 달러로 5000만 달러 줄었다.

금은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다. 9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일용직 건설근로자 힘내세요"

우리은행, 전용통장 출시

우리은행은 5일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해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힘내라! 건설인 통장·적금'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힘내라! 건설인 통장'은 입출식 통장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이거나 적금으로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1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1%의 금리를 제공하며, 월 10회에 한해 은행거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한 패키지 상품으로 출시하는 '힘내라! 건설인 적금'은 적립이 자유로운 자유적금 상품으로, 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만기를 정할 수 있다.

출시일 현재 기본금리는 1년제 연 2.3%, 2년제 연 2.4%, 3년제 연 2.5%이지만, 가입자가 건설근로자이면서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 최대 연 0.2%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약을 통해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인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한데 이어 일용직근로자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금융·나눔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유턴 시도 사고 5일에 1명 사망

삼성교통硏, 좌·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을

자동차 유턴 중 사고로 5일에 1명 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신호변경 직후 출발전에 좌·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확인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08~2012년간 경찰에 사고접수 된 유턴 중 교통사고 총 4만132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다.

이 기간 유턴 지정구간과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68명이며, 부상자는 6만4023명에 달했다.

유턴 시도 중 사망사고는 ▲측면충돌(66.3%) ▲ 보행자충돌(11.4%) ▲ 정면충돌(6.3%) ▲ 추돌(5.2%)의 순이었다.

측면충돌의 경우 반대 방향 직진차량 외에도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94건(39.3%)에 달했다. 연구소는 2차선 이상 차선에서 유턴을 시작할 경우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턴 시도 중 교통사고를 피해자별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건수 기준 20.1%를 차지했다.

이는 반대 차선의 신호위반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때문에 발생했다.

고병곤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유턴 시에는 빠르게 18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주위상황을 확인하거나 돌발상황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 유턴을 금지시키고 불법유턴이 잦은 위험지역에는 '중앙분리봉'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석기자

내년 섀도보팅 폐지 상장사 '발등의 불'

issue&view
3% 룰은 유지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경영차질 우려 17곳 주총 공시 … 감사 재선임 서둘러

상장회사의 감사위원들이 임기를 남겨놓고 대거 재선임되거나 중도퇴임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상장사들은 내년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를 앞두고 미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연내 감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는 모양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7곳이 감사 선임 관련 주총 공시를 냈다.

우리들휴브레인과 우리들제약, 삼성중공업 등 3곳은 지난달 임시주총 결과 감사 재선임을 승인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을 앞두고 감사위원 2명이 중도퇴임했고 한국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임기를 5개월여 남긴 채 감사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효성ITX·한국가스공사·롯데하이마트 등 나머지 상장사들은 일제히 감사 선임안을 의결안에 포함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예고했다.

이달 들어서도 슈넬생명과학·우리투자증권 등이 관련 임시주총을 다음달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섀도보팅은 회사가 주총을 소집할 때 주주들의 저조한 참석으로 정족수가 미달해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해서 총회 안건 의결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총에서 주주들 참여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한층 높아진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결권을 스마트폰·PC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회사들은 섀도보팅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총 절차나 경영상의 차질을 강도높게 우려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실무적으로 곤란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섀도보팅은 사라져도 '3% 룰'은 유지되므로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감사 선임에 걸림돌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생겼다.

3% 룰은 특별 의결사항인 감사 선임에 대해 대주주가 보유 지분에 상관 없이 3% 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기준이다. 섀도보팅이 사라지면 대주주가 3~4명에 불과한 회사의 경우, 주총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일반주주 참여율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상장사들은 일단 미봉책으로 올해 안에 감사 선임 등 주총의 주요 사항을 통과시키고 추후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대비를 전개할 작정으로 풀이된다.

우리투자증권만 해도 NH농협증권과의 합병으로 신설 법인이 출범하는 오는 12월 31일에 앞서, 같은달 중순 열리는 주총에서 임기가 남은 감사위원들을 일제히 재선임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금융위가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것이 지난해 5월이므로 이미 1년 반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친 셈이다.

다만 대주주 3%룰은 우리나라에만 거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예매하면 동반자 티켓 무료 제공"

KB카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이벤트

KB국민카드는 5일 대형 뮤지컬을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원 플러스 원(1+1) 문화공연 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3번째로 전개되는 이번 문화 이벤트는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동반자 티켓을 무료로 제공한다.

공연은 모두 1200여석 규모로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11월 30일 오후 7시 펼쳐진다.

티켓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KB국민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며, KB국민카드로 예매 시 예약 좌석과 동일한 좌석 등급으로 동반자 1인 티켓이 무료 제공된다.

좌석별 요금은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으로 1인 최대 2매까지 구입 가능하다.

한편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뮤지컬 거장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의 최신작으로,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던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하류 계급 출신으로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는 마그리드 아르노의 엇갈린 운명을 다루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배우 옥주현과 차지연이 출연해 각각 마리 앙투아네트와 마그리드 아르노를 연기할 예정이다.

윤창수 KB국민카드 홍보팀장은 "KB국민카드와 함께하면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뮤지컬 등 문화 공연들도 티켓 비용 부담을 줄여 실속있게 즐길 수 있다"며 "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문화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SBI저축은행, 인천지점 개설

SBI저축은행은 5일 신규 고객과 지역 영업기반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인천지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점은 개점 기념으로 500억원 한도로 1년 가입 기준 연 금리 3.2%의 정기예금을 한정 판매한다. 특판 정기예금 100번째 가입 고객에게는 특별사은품도 제공한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일 계열 저축은행 통합을 통해 자산 규모 3조8000억원으로 업계 1위가 됐다. 오는 12일에는 광주지점이 개점할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삼성SDS 공모 '대박 조짐'

청약 첫날 경쟁률 20대 1…2조3천억 몰려

올해 국내 증시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삼성SDS의 공모주 청약 첫날 경쟁률이 20대 1을 기록했다.

보통 마지막 날에 청약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 첫날 경쟁률이 삼성생명 공모 첫날 기록을 뛰어넘어 흥행 대박 조짐을 보였다.

5일 상장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사 5곳의 청약 현황을 집계한 결과, 청약 첫날 공모물량 121만9921주 모집에 2477만3520주의 청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첫날 경쟁률은 평균 20.31대 1로 마감됐다. 이는 삼성생명 공모 청약 첫날 경쟁률인 6.51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청약 증거금은 2조3535억원으로 집계돼, 삼성생명의 첫날 증거금(3조1820억원)을 넘기지는 못했다.

이날 오전 8시 청약이 시작된 후 1시간여 만에 대부분 증권사의 청약 경쟁률이 2대 1을 넘어섰다.

증권사별로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증권의 청약경쟁률이 36.36대 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삼성증권의 경쟁률은 이미 오전 10시부터 10대1을 넘어섰다.

상장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8.98대 1)을 비롯해 청약을 받은 모든 증권사에서 청약이 공모물량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인 19조8000억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던 삼성생명의 공모 규모를 뛰어넘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펀드·ELS 가입시 경품 증정 우리투자증권은 다음달 19일까지 은행 연계 증권서비스인 우리투자증권tx를 통해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고객에게 최대 7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펀드 가입자 가운데 정기자동대체나 CMS 약정을 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스피커와 영화예매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우리투자증권 제공

'럭셔리 세단의 재구성'…눈길 끌어

시승기

현대 아슬란

수입차 고객 최우선 공략 매월 2000여 대 판매 목표

"쏘나타나 그랜저를 타던 고객이 수입차로 바꿔 탈 때 가슴 아팠습니다."

현대차 김충호 사장의 말이다. 아슬란의 등장 배경은 이 한 마디로 설명된다.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넘어가지 않고 수입차로 갈아타려는 이들이 현대차의 최우선 공략 대상이다.

포지션은 그랜저와 제네시스 사이지만, 차체는 그랜저를 베이스로 했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가 2845mm로 그랜저와 같고, 트레드(좌우 바퀴 축간 거리)도 앞 1606mm, 뒤 1607mm로 그랜저 사이즈와 일치한다. 차체 높이(1470mm)도 똑같다.

그러나 차체 스타일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랜저와 달리 보닛을 세우면서 제네시스(DH)나 쏘나타(LF)의 얼굴과 비슷해졌다. 오버행(범퍼 끝부터 바퀴 축까지 거리)의 경우 그랜저는 앞이 960mm, 뒤가 1115mm인 반면, 아슬란은 앞 975mm, 뒤 1150mm로 설계됐다. 뒤쪽이 더 많이 늘어나 비례감이 좋아졌고 늘씬해 보인다.

실내 분위기는 그랜저와 쏘나타를 절묘하게 섞었다. 대시보드는 디테일을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마무리했다. 시트 착좌감은 매우 훌륭하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에 마름모꼴 박음질 처리(퀼팅 패턴)가 적용돼 몸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도어 트림에 단 전동 시트 조절 버튼은 조절하기 편하게 시트 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듯하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슬란 고객의 36.8%는 법인 고객이고, 50대 고객이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체 임원급이 선호함을 데이터로 알 수 있다. 이런 차는 조수석 왼쪽에 시트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 운전기사가 시트를 앞뒤로 조절해 뒷좌석 승객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 아쉽게도 아슬란에는 이 장치가 없다.

3.0 모델과 3.3 모델 중 시승차는 최고급형인 'G330 익스클루시브'. 최고출력 294마력, 최대토크 35.3kg·m의 성능을 지닌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했다. 현대차가 꼽은 아슬란의 경쟁차종인 렉서스 ES350(277마력), 링컨 MKZ(234마력)뿐 아니라 국산 준대형차인 한국GM 알페온(263마력), 르노삼성 SM7 3.5(258마력)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성능이다.

급가속 때의 반응 역시 경쟁차 중 가장 강력하다. 3단 기어에서 시속 140km를 커버할 정도로 변속기 매칭이 공격적으로 설정됐고, 대부분의 속도 영역에서 가속 반응이 즉각적이다.

승차감은 부드러운 편인데도 고속에서 불안하지 않다. 주행 중 단차가 있는 노면을 갑자기 만났는데 서스펜션의 흔들림이 크지 않았다.

공회전 때는 진동과 소음 모두 알아채기 힘들다. 속도가 올라가도 바람소리와 타이어 소음만 조금씩 들려온다. 엔진이 워낙 조용해 다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소음측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시속 80km에서 67dB(데시벨), 시속 100km에서 70dB를 기록했다.

시승 중 체크한 연비는 11.2km/ℓ다. 정차구간이 거의 없는 국도를 달리긴 했지만 급가속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편이다. 표시된 고속도로 연비(11.9km/ℓ)와의 차이도 크지 않다.

현대차가 내건 아슬란의 판매 목표는 연간 2만2000대. 매월 2000여 대를 팔겠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상품성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가격은 G300이 3990만원, G330은 4190만~4590만원이고, G330에 풀 옵션을 갖추면 5065만원이다. 제네시스 G330에 엇비슷한 옵션을 갖출 경우 5800만원이므로 시장 간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슬란의 데뷔는 오피러스 단종 이후 끊어진 국산 전륜구동 고급차가 부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겨울철 주행에 불리한 후륜구동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적극 어필한다면 수입 세단으로 눈길을 돌리려는 고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500대 기업, 평균 나이 32세

20년 미만 '청년기업' 63% 대기업 계열

국내 500대 기업의 평균 나이가 31.8세로 조사됐다. 설립 20년 미만 '청년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청년기업의 63%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분할·설립회사였다. 반면 청년기업 중 순수 자수성가형 창업은 12%에 그쳤다.

5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매출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설립연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나이가 31.8년으로, 10년 전 26.9년보다 4.9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포춘 선정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나이인 74세와 비교하면 42년이 젊다.

가장 많은 기업이 분포한 나이 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현대글로비스(설립 나이:13년), 홈플러스(15년), LG생활건강(13년) 등 108개 기업이 속했다. 여기에 10년 미만 56곳을 포함한 설립 20년 미만의 청년 기업은 164곳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청년 기업은 SK이노베이션(7년), 삼성디스플레이(2년) 등 대기업 그룹이 분할·설립한 곳이 104곳(6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순수 창업은 네이버(15년), 엔씨소프트(17년), 파트론(11년) 등 19곳(11.6%)에 그쳤다. 최근 사기대출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뉴엘(10년)도 여기에 포함됐다. 나머지는 외국계(13.4%), 공기업(8.5%), 인수·합작(3%) 등이었다.

청년기업에 이어 40년 이상 50년 미만이 88곳(17.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전자(45년), 현대자동차(47년), 포스코(46년), 현대중공업(41년), GS칼텍스(47년), 롯데쇼핑(44년) 등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 기업이 대부분 포진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전자업체 튀는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소비자 교감 통해 개성 살린 제품 출시

전자업계가 한층 더 뛰어난 디자인으로 무장하고 있다.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일 년에 두 번 디자인 전략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디자인경영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부근 소비자가전 부문 사장의 주재로 삼성전자의 완제품 사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참여하는 자리다. 지난달 29일 열린 하반기 회의에서는 기존 경쟁사들의 압박과 중국 업체들의 추격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력을 통해 삼성전자는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적용한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고 있다. 메탈 소재 테두리를 적용한 스마트폰 '갤럭시 알파', 오른쪽 측면에 곡면 디스플레이를 단 '갤럭시 노트 엣지' 등이 그 예다. 최근에는 일본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 '굿 디자인 어워드 2014'에서 40점의 작품이 수상을 하기도 했다. 수상작 중 하나인 크리스털블루도어 세탁기 'WW9000'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좋은 높이, LCD 스크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웨어러블 기기 '기어핏'은 손목에 착용하기 편한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사용자의 취향대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사용자경험(UX)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LG전자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업계 최초로 사각형이 아닌 원형 공기청정기 '몽블랑 프리미엄'을 선보였다. 원형 외관을 기반으로 리얼 메탈 소재, 스핀 헤어라인 공법을 적용한 디자인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달 출시한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G워치R'은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했다. 타사 제품과는 달리 실제 시계와 다르지 않은 디자인을 채택했다.

제품의 성능과 기능 측면보다는 고객들의 개성, 성격 등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LG전자의 스마트폰 '아카(AKA)'도 눈길을 끈다. 4가지 성격에 따라 4종으로 출시돼 구입한 순간부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음악 감상, 알람 등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전면 스크린 상단에 위치한 눈 모양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잡코리아가 조사한 2014년 대학생이 생각하는 국내 주요 그룹사 이미지. 왼쪽부터 삼성, 현대차, LG, 포스코, SK, 롯데 그룹의 이미지 캐릭터. /잡코리아 제공

삼성 '지적男' 현대차 '강인男'

잡코리아 주요 그룹사 이미지… 대학생 설문 조사

삼성은 지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30대 남성, SK는 대중적 분위기의 세련된 20대 여성. 취업 준비생이 인식하는 기업 이미지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2009년 1146명, 2014년 89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 주요 그룹사 이미지' 비교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6개 그룹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와 LG는 인식 변화를 가장 크게 겪은 기업이었다.

2009년 당시 LG는 '20대 중후반의 여성'의 이미지였지만 현재는 '30대 초중반의 남성'으로 성별과 연령대가 크게 바뀌었다. SK는 정반대였다. 2009년 조사에서는 '30대 초중반의 남성'으로 연상됐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20대 중후반의 여성'으로 표현됐다.

롯데와 현대자동차는 젊어진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2009년 동일 조사에서 대학생들은 롯데 이미지로 '30대 초중반의 여성'을 떠올렸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20대 중후반의 여성'이 연상된다고 답했다. 현대자동차 연령 이미지는 '3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젊어졌다.

그룹 자체 이미지로 볼 때 LG는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에서 '유행에 민감한 친근한 이미지'로 변화했다. 현대자동차는 '권위적이고 강인하게 보인다'에서 '진취적이며 도시적이다'로 인식이 바뀌었다.

한편 대학생이 생각하는 삼성 이미지는 '지적이면서 냉정한 남성', SK는 '세련되고 대중적인 여성', 포스코는 '강인한 근육질 남성'으로 표현됐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올레tv, 국내 최초 개봉관 서비스 올레tv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에서 미개봉 프리미엄 영화 기획관 '국내 최초 개봉관'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사진 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레tv 제공

서울대 등 5곳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선정

자원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인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을 주관할 대학 5곳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대·한양대·인하대·전남대·강원대 등 5개 대학의 컨소시엄을 2단계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 주관 대학으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1단계가 자원공학과를 둔 전국의 대학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기간인 올해부터 5년간은 특화된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셰일가스를 비롯한 비전통 자원개발과 석유·가스 탐사, 자원생산 증진 등이 주요 연구 과제로 꼽힌다.

주관 대학들은 공기업과 산학 협력 연구단을 구성해 과제를 수행한다. 해당 대학에서 자원 분야 전공과목을 늘리고 전문 교원을 채용하거나 실험 기자재를 확충하는 데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우수 학생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김민준기자 mjkim@

'3억원 때문에' 투자 못받는 벤처

대한상의 "코넥스 기본예탁금 내려야" 촉구

"코넥스시장의 하루 전체 거래대금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은데도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매가 부진하고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가 침체된 금융산업의 활력 진작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5일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는 거래활성화, 영업환경 개선, 자금운영 원활화, 이중규제 해소 등 4개 분야 20개 현안과 제가 담겨있다.

건의문은 먼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과 달리 기본예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의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면 3억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상장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코넥스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참여자를 어느 정도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제한하려는 제도다.

/박성훈기자

삼성전자,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그램 삼성전자가 중고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자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삼성전자 포인트를 지급하는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그램을 다음 달 4일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미국 입국때 최대 80분 걸린다

재계 "심사 신속화·전문직 비자 확대" 요구

한국인이 미국 주요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최대 80분이 소요된다.

이에 재계가 미국 측에 입국심사 신속화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에는 조양호 위원장(한진그룹 회장), 폴 제이콥스 위원장(퀄컴 회장)을 비롯해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 등 양국 정·재계 인사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재계는 이번 총회에서 미국 측에 한미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4대 과제로 ▲미공항 입국심사 신속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산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 수출 확대를 요청하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를 촉구했다.

2012년 기준 미국내 한국인 유학생 수(7만2295명)는 중국(19만4029명), 인도(10만270명)에 이어 3위임에도 한국에 발급되는 전문직 비자는 전체의 1.9% (2662명)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 유학 후에도 한국인의 현지 취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은 호주, 캐나다 등 주요 FTA 상대국에 FTA협정의 일부로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제공한 선례가 있다.

현재 미국 의회에 한국인에 연간 1만5000개의 비자를 제공하는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이 상정돼 있다. /박성훈기자 zen@

아파트 전세가율 70%… 미분양이 팔린다

가을 이사철 접어들며 매입쪽에 눈길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난에 미분양 아파트가 때 아닌 전성기를 맞고 있다. 끝없이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비싼 전세마저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이 혜택 좋은 미분양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9.4%에 이른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지역이 68.0%로 가장 높고, 인천과 서울도 각각 65.3%와 64.9%로 집계됐다.

이는 진작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지방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방이 2년간 3.1%포인트 오른 사이 수도권은 10.6~11.3%포인트나 뛰었다. 재계약을 앞두고 세입자들이 받을 충격은 수도권이 훨씬 큰 셈이다.

이에 반해 올 3분기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3만9168가구로 이전 분기보다 1만1000가구 줄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90%가 넘는 1만200가구 감소하며, 빠른 미분양 소진률을 보였다.

SK건설이 서울 노원구에 지난 6월 분양한 '꿈의숲 SK뷰'만 보더라도 전용면적 59㎡ 소형은 다 팔리고, 현재 84㎡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장 관계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1300만원대부터 시작해 노원구 일대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9월 이후에만 그 이전보다 4배 이상 계약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배후 지역인 경기·인천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뚜렷하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고양시에 선보인 '일산 푸르지오'는 9·1대책과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10월 분양을 마감했다.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이었지만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부각됐다.

요진건설산업이 고양에서 분양중인 '일산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도 9월 120건의 계약이 성사된 데 이어, 10월에도 매주 30가구가량 팔리고 있다. 또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포스코건설이 공급한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는 한 달 10가구씩 팔리던 데서 현재는 40가구 넘게 판매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에서 호반건설이 분양한 '호반베르디움'은 10월 말 완판됐다.

꿈의숲 SK뷰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이 분양상담을 받고 있다.

강남의 대형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대우건설이 서울 잠실에 지은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3.3㎡당 2000만원대 초반으로 수요층이 한정돼 있음에도 가을 들어 미분양이 속속 소진되고 있다. 8월까지 한 달에 2~3건 계약됐지만 9월 이후에는 8건으로 판매건수가 크게 늘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수도권에서 소진된 미분양 아파트 모두를 세입자들이 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미분양의 경우 분양가 할인, 계약조건 완화 등을 활용해 기존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형형색색의 LED 전구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3D LED 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전세가 3억 이하 아파트 크게 줄어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선호현상이 계속되면서 서울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가 5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0만4728가구 중 전세가가 3억원 이하인 가구수는 69만913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96만96가구에서 26만957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호하면서 2009년 이후 3억원 이하의 저렴한 전세 가구수가 꾸준히 줄어든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송파구로 2009년 5만7427가구에서 2014년 2만1384가구로 5년 동안 3만6043가구가 줄었다.

송파구는 6600가구 규모의 가락시영 아파트 이주수요와 잠실동에서 인근 지역으로 밀려난 세입자 수요가 대부분이다. 지역에서 전세가가 상승하며 3억원 이하의 저렴한 가구수가 크게 줄었다. 특히 장지동 일대 송파파인타운 단지들은 2009년 2억~2억5000만원 선이었던 전세가가 2014년 현재 3억3000만~4억1000만 원으로 3억원 이하의 전세 가구가 없다.

뒤를 이어 강남구가 5만1253가구에서 2만3233가구로 2만8020가구가 감소했다. 성동구는 3만6858가구에서 1만6009가구로 2만849가구가 서초구는 2만8849가구에서 8839가구로 2만10가구가 감소했다. /김두탁기자 kimdt@

"1조4000억 용지 잡아라"

건설업계, 광교 호수공원 주변 확보경쟁 치열

경기 광교신도시의 잔여 공동주택 부지 확보전이 치열하다. 특히 사업성이 좋은 호수공원 주변 주상복합과 업무복합 용지를 차지하기 위한 시행·시공사간 경쟁이 뜨겁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3블록을 필두로 호수공원을 끼고 공급된 C2·C3·C4블록 총 4곳의 낙찰가격 총액은 총 1조4067억원에 이른다.

가장 먼저 올 2월 레이크시티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업무복합용지 D3블록을 3.3㎡당 1667만2622원, 총 2570억원에 낙찰 받았다. 지난 7월 사업승인을 받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참여해 이달 '힐스테이트 광교' 1100가구를 분양한다.

이후 8월 공급된 C3블록과 C4블록은 각각 네오밸류인베스트먼트에 2420억원, 대상산업에 1577억원에 매각됐다. 3.3㎡당 1718만1762원, 1748만4650원으로 앞서 나온 D3블록보다 비쌌다.

마지막 용지였던 C2블록은 지난 3일 진행된 부지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흥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공급예정금액 5644억원의 130% 수준에서 매각됐다는 경기도시공사의 발표를 감안하면 낙찰가는 3.3㎡당 2934만원, 총 7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에서 3년간 신도시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의 용지 희소성이 높아졌다"며 "여기에 광교신도시 집값이 올 들어 5%가량 상승하는 등 투자가치가 입증되면서 건설사 간 부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부지 낙찰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에 따라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중견건설사의 홍보팀장은 "아파트 분양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땅값인데, C2블록 택지비가 D3블록보다 1.7배 높다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도 1.7배 비쌀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지역에서 이 정도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선옥기자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공급용지 토지가격 비교표

구분		C2블록	C3블록	C4블록	D3블록 (힐스테이트 광교)
면적	㎡	84,479	46,561	29,816	50,957
	평	25,555	14,085	9,019	15,414
낙찰가 (단위:원)		750,000,000,000 (추정금액)	242,000,000,000	157,700,000,000	257,000,000,000
평당가 (단위:원)		29,348,582	17,181,762	17,484,650	16,672,622
낙찰자		중흥건설㈜	네오밸류인베스트먼트(유)	대상산업㈜	레이크시티㈜
사업개요		2300가구	987가구	686가구	아파트: 928가구 오피스텔 : 172실
분양시기		2015년 하반기	2015년 6월	2015년 하반기	2014년 11월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서울시합창단

합창 스칼라오페라합창단

지휘 서희태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신동원

바리톤 김동규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후원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빼빼로 vs 가래떡, 당신의 선택은?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제과업계 맞서 홍보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를 앞두고 제과업체는 물론 대형 유통업체와 편의점, 온라인 마켓들까지 가세하면서 특수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빼빼로 데이'의 유래를 보면 80년대 영남 지역의 여고생들이 1983년 생산된 롯데제과의 빼빼로(**사진 왼쪽**)를 먹고 빼빼하게 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이 과자 제품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됐다. 롯데제과 측은 1997년부터 이를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활용했고 현재는 특정 기념일처럼 여겨지고 있다.

원조 스틱과자라고 할 수 있는 '포키'를 생산한 일본의 에자키글리코사는 한국 내 열풍을 지켜보고 1999년에 11월 11일을 '포키와 프렛츠의 날'로 정하고 이후부터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해태제과는 2011년 이 회사와 합작법인 형태로 세운 글리코-해태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포키 과자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서 '스틱 데이'라는 명칭으로 맞불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날이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가래떡을 나눠 주면서 시작된 '가래떡 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적다.

농업인의 날은 정부가 1996년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 후 다음 해인 1997년 농업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土'자가 겹친 '土月 土日'을 상정했다.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 쓰면 11월 11일이 된다는 데 착안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 농업인의 날부터 가래떡의 날 행사를 시작했다.

이 날이 젊은이들 사이에 열풍처럼 퍼지면서 기업의 상술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외식·유통 업체들은 농업인들의 노고와 우리 전통 가래떡의 의미도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가래떡 데이와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식 브랜드 스쿨푸드가 최근 선보인 '쟁반 국떡'은 자사의 대표 떡볶이인 '길떡'이 맵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내 논 순한 메뉴다. 쟁반같이 넓고 둥근 그릇에 떡볶이와 국물을 넉넉하고 자작하게 담아내 '쟁반 국떡'이라 불린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은 가래떡과 치즈의 조합을 살린 '쌍쌍 치즈가래떡'(**오른쪽**)를 내놨다. 가래떡 속에는 모차렐라치즈, 겉에는 체더치즈와 치즈가루가 들어가 감칠맛을 느끼는 동시에 오븐에 구워낸 떡은 먹을수록 쫄깃하고 고소하다.

농협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가래떡의 날 소문 내기 이벤트를 벌인다. 가래떡의 날 이벤트 홈페이지를 자신의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 등 SNS에 스크랩해 SNS 친구들에게 가래떡의 날을 홍보하도록 했다. 500명을 추첨해 두유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농업농촌 종합 정보 포털 '옥답'은 응원 댓글 이벤트를 오는 9일까지 펼친다. 우리 식탁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땀 흘리는 전국의 농업인에게 응원메세지를 보내면 10명을 선정해 영화예매권을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100% 당첨 럭키카드 행사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5일 겨울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당첨률 100%의 경품 이벤트인 '럭키카드'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겨울 신메뉴 '팬 디저트' 6종 가운데 1종 이상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럭키카드를 전달하고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행사는 럭키카드 소진 때까지 진행되며, 팬 디저트 1개당 럭키카드 1장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카페베네 제공

외국산 담배 캡슐 장착 제품 봇물

부분 적용, 가격·모양 각각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외국계 담배 회사들이 잇따라 청량감을 앞세운 캡슐 장착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6일부터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 15+5 한정판'을 한정 기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 고유의 부드럽고 구수한 맛을 그대로 전하는 동시에, 5개비에는 새롭게 개발된 스파클링 캡슐을 추가해 깔끔한 청량감을 즐길 수 있도록했다. 가격 역시 기존과 같은 갑당 2700원이다.

이에 앞서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코리아)는 지난 3일 던힐 브랜드 최초로 수퍼슬림 제품에 천연 원료의 상쾌한 캡슐을 장착한 '던힐 파인컷 스위치 1MG'를 선보였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재배되는 던힐 최고급의 담뱃잎 만을 사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필터 안의 캡슐을 터뜨리면 던힐 고유의 고급스러우면서도 풍부한 맛이 시원하고 깨끗한 맛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한정기간 동안 2300원에 판매한다.

JTI코리아도 지난 5월에 국내최초로 2개 캡슐로 4가지 맛 담은 '카멜 더블 Ice & Red'에 이어 6월 캡슐형 담배인 '메비우스 옵션 2'를 선보였다. /정영일기자

유통업계 '캐릭터에 빠지다'

키덜트족 등 어른 대상 마케팅 공략 나서

유통업계가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린이는 물론 키덜트족도 공략할 수 있어 캐릭터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기념일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G마켓은 최근 40주년을 맞은 '헬로키티'(**사진**)를 공식 입점 시켰다. 오픈마켓에 공식 입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0주년 특별 한정판 상품을 비롯해 일본 산리오 본사에서 직수입한 상품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닷컴은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 선물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6일부터 겨울왕국 캐릭터 가방을 예약판매한다. 여아 가방 세트의 경우 여성 핸드백을 모티브로 14K 골드 장식과 고급 합성피혁을 사용하고, 가방에 흘러내림 방지 가슴벨트와 등판 고탄성 스펀지를 적용해 아이들이 편안하게 멜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편 편의점 GS25는 고객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라인과 손잡고 빼빼로 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브라운·코니 인형 등 라인 프렌즈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다.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라인 캐릭터를 마케팅에 이용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강강술래 "하루 30분씩 독서하세요~"

길벗출판과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 전개
전 매장, 보양식 곰탕 30% 할인에 덤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책 읽는 사회풍토 조성과 독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출판그룹 길벗과 함께 '하루 30분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을 벌인다.

강강술래는 이달 30일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신청 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작아도 크게 버는 골목가게의 비밀'과 '위험한 자신감'을 증정한다.

'골목가게의 비밀'은 3000명의 골목가게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이템 선정 등 알짜정보는 물론 각종 정부지원 창업자금 대출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전략서다.

'위험한 자신감'은 자신감을 강요하는 현대사회를 분석하고 자신감이 결코 성공의 만능열쇠가 아님을 보여 주는 한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진짜 실력임을 증명하고 이를 키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한편 오는 14일까지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기력보충은 물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를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하며,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같은기간 상계·홍대·시흥·늘봄농원점은 소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을 주문한 만큼 무료 증정한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준다.(해피아워·정식류 제외, 신림·시흥점 주중에만 진행) /정영일기자

패션업계 '월동준비' 잰걸음

겨울 신상 출시, 할인 행사도 풍성

이른 추위에 패션 브랜드들이 발빠르게 '월동준비'에 나섰다. 겨울 신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일찌감치 할인 이벤트를 벌이며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2014 가을·겨울 웜팬츠·스커트'를 출시했다.

겉감은 가볍고 움직임이 편안한 폴리에스터를 사용하고 안감은 후리스나 기모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여성·남성용부터 키즈·베이비 제품까지 다채롭게 내놨으며, 슬림핏·카고 팬츠·스커트 등 디자인도 다양하다.

남성용 '웜이지 팬츠'는 재킷과 함께 캐주얼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웜이지 슬림핏 스트레치 팬츠'와 다트·스트링 등 활동성을 강화해 아웃도어룩에 적합한 '웜이지 카고 팬츠'로 구성됐다. 여성용 '웜이지 스커트'는 스커트뿐 아니라 무릎 덮개나 케이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슈즈 브랜드 크록스는 여성 패션 부츠 '아델라 폴드오버 퍼즈 부츠'를 선보였다.

천연 스웨이드 상부와 부드럽고 따뜻한 인조 셰르파 소재 안감을 사용해 보온성을 강화했다.

독특한 컬러 매치가 돋보이며, 펼치거나 접어서 신을 수 있어 두 가지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내구성과 마찰력이 우수한 고무 구두창을 사용해 눈길에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다.

부츠·패딩 슬리퍼 등 추운 날씨에 유용한 겨울 신발 할인 행사도 한창이다.

락피쉬 등 수입 슈즈 브랜드를 공식 판매하는 온라인 편집숍 '레디'는 매주 월~수요일을 '레디 데이'로 지정하고, 커피 쿠폰 선물·스크래치전 등의 행사를 벌인다.

또 11일까지 레인부츠와 삭스 패키지, 남녀 커플 신발 등을 할인 판매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어플리케이터 화장품 '대세'

면봉 필링·아이 마그네틱 등 뷰티·과학 결합

제품과 기기가 결합된 일명 '도구형(어플리케이터) 화장품'이 진화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진동 클렌저나 진동 파운데이션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아이크림·필링 제품에도 어플리케이터가 장착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장품의 효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용하는 재미까지 주는 독특한 어플리케이터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라비다 '화이트 솔루션 필링 스왑'은 손에 묻지 않는 부드러운 면봉 형태의 각질제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에서도 셀프 필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면봉 형태의 도구를 얼굴에 문지르면 손이 닿기 힘든 부위까지 세심하게 각질을 제거해준다.

각질제거에 효과적인 AHA 성분이 두텁고 노화된 각질을 말끔하게 녹이고, 미백 기능성 성분이 잡티 없이 깨끗하고 환한 피부 톤으로 가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SK-II는 눈가 피부를 가꾸는 'SK-II 스템파워 아이크림'과 '마그네틱 아이스틱'으로 구성된 '마그네틱 아이케어'를 출시했다.

스템파워 아이크림은 스템아카넥스 아이 콤플렉스가 함유돼 눈꺼풀은 탄탄하게, 처지는 눈꼬리는 샤프하게, 늘어지는 눈 밑 피부는 탄력 있게 가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마그네틱 아이 스틱은 혁신적인 기술로 스템파워 아이크림 주요 성분의 반자성을 이용해 제품의 주요성분을 피부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도록 도와준다는 게 SK-II 측의 설명이다.

홀리카 홀리카 '곤약 탱글 퍼펙트 버블 폼'은 클렌징 때 사용하는 전용 브러시와 패드가 제품에 달려있다.

곤약처럼 말랑말랑한 촉감의 실리콘 패드가 메이크업 잔여물과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닦아낸다. 또한 피부의 묵은 단백질 분해에 뛰어난 천연 식물 성분 곤약을 함유해 자극이 없는 세안이 가능하다.

/박지원기자

수험생 돕는 아이디어 상품은?

방석·보온용품 '눈길'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3일 치러지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출시한 수능 아이템이 눈길을 끌고 있다.

수능 시험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시험 시간 동안 집중력을 잃기 쉽다. 8시간 동안 진행되는 시험에선 편안한 시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

템퍼는 템퍼 방석과 템퍼 등받이를 판매하고 있다. 템퍼 방석은 체중을 제품 전체로 고루 분산시켜 장시간 동안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템퍼 등받이는 압력 경감 효과로 척추의 굴곡에 따라 형상화돼 허리를 완벽하게 지지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온 제품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의 데이즈가 출시한 경량 다운 점퍼는 얇고 가벼운 동시에 보온성이 좋아 야외활동은 물론 실내용으로도 적합하다. 또 유니클로의 후리스는 스펀지처럼 부풀린 폴리에스터 소재가 따뜻한 공기층을 만들어 가볍고 포근하다.

소프라움의 덕다운 블랭킷 토디는 덕 다운이 80%가 충전된 제품이다. 가장자리에 단추가 달려있어 숄처럼 어깨에 걸치고 똑딱단추로 잠그면 숄처럼 활용할 수 있다.

수능 당일 긴장한 상태에서의 식사로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죽이나 따뜻한 차를 담을 보온병을 준비해 점심시간에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써모스코리아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보온 도시락과 보온병 등을 선보였다. 보온도시락 JBG는 6시간 동안 68℃를 유지하는 보온력을 자랑한다. 보온 죽통 JBJ는 작은 크기로 휴대가 편하고, 보온병 JNL은 원터치 오픈이 가능해 음용이 편리하다.

/김수정기자 ksj0215@

도심 속에서 힐링 즐기세요

르네상스 서울 호텔, 맞춤형 윈터 패키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내년 2월까지 '윈터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윈터 세이빙 패키지 ▲윈터 환타지 패키지 ▲윈터 원더랜드 패키지 등 총 3가지로 구성된다. 또 디럭스룸에서의 1박과 수영장·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사우나 50% 할인 등을 공통 혜택으로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연인을 위한 윈터 환타지 패키지에는 트레비 라운지 윈터 칵테일 2잔 등이 추가되며 조식과 함께 객실로 버거와 윙 등이 제공되는 윈터 원더랜드 패키지는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문의: 02)2222-8500

/황재용기자 hsoul38@

뉴스&뉴스

네이처리퍼블릭, 멤버스데이… 최대 50%↓

●네이처리퍼블릭은 '네이처 멤버스데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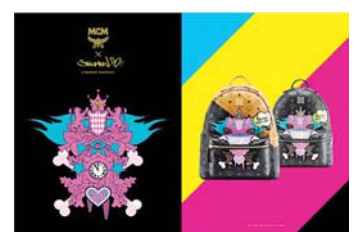
9일까지 전국 630여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록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초록 멤버십 회원에 한해 할인이 적용되며 행사 당일 매장에서 새로 가입하는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일 기간에는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은 불가하다.

MCM, 스트럼벨과 협업 '한정판' 선보여

●MCM은 독일 출신의 팝아티스트 스테판 스트럼벨과 협업해 한정판 'MCM X Strumbel'을 5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품은 백팩·숄더백·클러치백·탬버린백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된다.

검정과 코냑 색상을 활용해 스트럼벨 특유의 선명한 색감을 나타냈으며, 스테판 작품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뻐꾸기시계를 적용했다. 제품은 MCM 플래그십 매장과 지정 매장에서 판매한다.

/박지원기자

초겨울 산행 부상 조심

출발 전 위기상황 대처법 알아둬야

겨울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단풍 산행이 절정이다. 하지만 산행은 항상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상 등의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끄러짐 등으로 발목이 접질리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발목을 다치면 내려오기까지 장시간 무리를 하게 되며 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단순 염좌로 착각해 찜질 등의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상을 하면 일단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뒤로 넘어지면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척추가 주저앉아 변형되는 것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폐경기 여성들은 이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등산 때는 나무나 가시 등에 찔려 찢어지거나 피가 나는 상처를 자주 입게 된다. 이런 경우를 자상이라고 하는데 자상은 상처 부위보다는 원인에 따라 처치법이 다르다. 가시에 의한 자상은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 소독한 족집게로 가시를 뽑는 것이 안전하며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유리나 금속 등에 의한 부상은 파상풍의 위험이 있으므로 응급처치 후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 야외활동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중 하나는 찰과상이다. 찰과상은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가 나고 쓰라림을 느끼는 현상으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우선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신체부위보다 예민한 눈 주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경우라면 눈을 감싸거나 지혈을 위해 상처 부위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상처에 자극이 가해져 시신경이나 각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가을철 산에 오르다 부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눈 주위 상처는 일반적인 상처와 응급처치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환자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고 응급처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유소년 축구팀에 구급약품

동국제약 지원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11월부터 두 달간 해외에 파견되는 한국 유소년 축구상비군에 구급약품을 지원한다.

회사는 2012년부터 한국 유소년 축구연맹을 통해 '마데카솔' 등 구급약품 9종이 담긴 구급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4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우승팀 등 해외로 나가는 3개의 유소년 팀에 구급약품을 전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미래 한국축구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이 넓은 세계 무대에서 부상 걱정 없이 마음껏 축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3월 연맹과 '유소년 상비군(대표팀) 후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소년 축구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먹방' 습관, 건강엔 적신호

나트륨·칼로리 과다 섭취 고혈압 등 주의

이른바 '먹방' 전성시대다. 각종 음식과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가득하고 이를 접한 사람들은 '집밥'을 차려 먹기보다 음식을 주문하거나 맛집을 찾는 외식을 즐긴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 변화에 따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전혜진(사진) 이대목동병원 건강증진센터 교수로부터 식습관 변화에 따른 주의사항을 들었다.

먼저 잦아진 외식으로 늘어난 나트륨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이 음식점 방문 시 가장 선호하는 김치찌개 1인분에는 평균 1962mg의 나트륨이 함유돼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일 나트륨 섭취량 2000mg에 육박하는 수치로 한 끼에 1일 기준치를 거의 다 섭취하는 셈이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고혈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각종 합병증을 초래한다. 따라서 소금 섭취를 줄여 혈압을 조절해야 하며 체내에 섭취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의 과잉 섭취에 따른 비만을 주의해야 한다. 주로 밤에 먹는 치킨 등 야식은 우리 몸에 체지방으로 축적돼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비만은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고혈압과 고지혈병, 당뇨병 등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며 영양소 불균형을 가져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황재용기자

'난청' 예방이 최선의 치료

이어폰 사용 젊은층에 많아 조심해야

현대인들의 귀는 피곤하다. 온갖 소음에 노출되고 이어폰 사용이 습관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인들만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난청이 젊은층에서는 '소음성 난청'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음성 난청은 청각세포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손상을 입고 청력을 잃는 질환을 말한다. 잦은 이어폰 착용과 지속적인 소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평소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가 힘들고 목소리가 고주파에 가까운 여성이나 어린이의 말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 소리가 들릴 정도라면 이미 청력 보호의 안전선을 넘었다고 보면 된다. 또 기계음이나 매미소리 등과 같은 이명이 계속될 경우에도 서둘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소음성 난청은 본인의 의지로 예방이 가능하다. 의식적으로 이어폰 볼륨을 낮춰야 하며 가능하면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귀 건강에 좋다. 아울러 귀에 휴식을 줘야 하며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황재용기자

시네마데이트 참가자 모집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이 'V라인 시네마데이트'와 함께 영화로 감성을 충전할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관람 영화는 장진 감독의 신작 '우리는 형제입니다'이다. 희망자는 광동제약의 광동옥수수수염차 브랜드 페이지에 접속해 '시네마데이트' 메뉴에서 '시네마데이트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고 영화를 보고 싶은 이유나 사연을 등록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140명에게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왕십리CGV에서 진행되는 시사회 초대장을 2매씩 제공한다.

희망의 붓으로 꿈을 그리다

신진작가·장애인 등 평소 자신의 꿈을 쉽게 펼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JW중외그룹은 회사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5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 아트스페이스H에서 '제4회 JW중외 영아트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워드는 젊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회사가 마련한 공모전으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신진작가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글로벌 도약 ▲친환경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재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 결과 김희용(성신여대 대학원 조소과)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총 10명이 본상 수상자로 선정돼 총 4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개인전 개최 기회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경하 JW중외그룹 부회장은 "어워드와 장애인 특별전은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재능을 키워나가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독기 빼고 편안함과 행복 추구했죠”

‘레드카펫’으로 돌아온 **윤계상**

에로영화 감독, 진실된 사람으로 연기
인정 받고 싶은 욕심 버리니 평정심이
“배우로서 안정감 찾은 전환점인 영화”

윤계상(35)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영화 ‘풍산개’에서 한 마디 대사 없이 오로지 눈빛만으로 복잡한 감정을 전달했던 윤계상이 3년 만의 영화인 ‘레드카펫’과 함께 한결 편안하고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레드카펫’(감독 박범수)은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고 싶은 에로영화 감독의 꿈과 열정을 그린 영화다. 극중 에로영화 감독 박정우를 연기한 윤계상은 “이야기의 진실성이 와 닿았다”고 작품 선택 이유를 밝혔다.

“감독님의 유머 감각이 좋았어요. 치고 빠지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야기의 진실성도 와 닿았고요. 감독님이 진짜 에로영화 감독이었잖아요. 영화 내용의 60%가 감독님 본인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시나리오였어요.”

영화는 정우가 아역 스타 출신 여배우 은수(고준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유쾌한 웃음과 진심이 묻어나는 감동으로 담았다. 정우는 에로영화 감독이지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순정적인 인물. 윤계상은 정우가 “진실된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랐다.

“정우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천천히 쌓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밋밋하게 보여도 여러 모습과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감동도 배가 되잖아요. 그런 충만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연기했어요.”

영화는 에로영화 현장의 사실적인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다. 모두가 궁금해 할 ‘베드신’ 촬영 현장은 물론 에로영화를 찍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인 감독, 배우, 스태프들의 고충까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윤계상 또한 이번 영화로 에로영화 현장을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다. 에로영화 배우들의 쾌활하고 유쾌함, 그리고 누구보다 선입견이 없는 모습은 배우로서도 큰 자극이 됐다.

영화 속에서 여배우 은수는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거니, 아니면 배우로 살고 싶었던 거니?”라는 질문을 받는다. 윤계상에게 이 질문을 던지자 그는 “예전에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배우로 살고 싶은 걸로 바뀌고 있다”고 답했다. 연기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 이후 서서히 찾아왔다.

“‘하이킥’을 마치고 허리가 아파서 1년 정도 쉬었어요. 그런데 허탈한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아플 때까지 무얼 한 거지? 그렇다고 꿈을 이룬 건가?’ 이런 질문들이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행복하려고 배우가 된 건데 아프니 서러웠죠.”

자연스럽게 배우로서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됐다. 그곳에는 “대중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찼던 과거의 자신이 있었다. “욕심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연기를 잘 하는 배우, 그리고 대중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었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심오한 내면을 담은 어두운 영화를 주로 찍었죠. 그런데 그게 제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자신의 선택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음을 깨닫게 되자 삶을 통째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다. “행복을 찾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다.

“연기로 인정받는 것은 하늘이 주는 기회이자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자 스스로 살아갈 만큼의 행복을 곳곳에 배치해서 따라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뻐요. god도 다시 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배우에 대한 열정이 변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제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꾸준히 지키면서 해 나가려고 해요.”

독기를 품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며 연기로 인정받으려고 하던 과거의 윤계상은 이제 없다. ‘레드카펫’에서 보여준 편안하고 여유로운 연기는 윤계상이 이제 배우로서 안정감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god 활동으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 윤계상은 조만간 또 한 편의 밝은 영화로 관객을 다시 찾을 예정이다.

“이제는 독기다 다 빠졌어요. 사람은 편안해야 누구를 만나도 즐겁고 행복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만 열심히 산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디자인/최송이

YG 새 보이그룹 iKON 탄생 눈앞에

바비·비아이·김진환·구준회·송윤형 최종 멤버 확정
남은 두 자리 주인공은 '믹스앤매치' 최종회서 공개

YG 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새 보이그룹 아이콘(iKON)의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바비·비아이·김진환·구준회·송윤형이 아이콘의 멤버로 확정된 가운데 남은 최종 멤버 2인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여섯 번째 멤버는 6일 오전 0시에 발표되며 마지막 일곱 번째 멤버는 6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믹스앤매치'에서 공개된다. '믹스앤매치'는 케이블채널 엠넷과 네이버TV캐스트를 통해 방송된다.

'믹스앤매치'는 지난해 '윈: 후 이즈 넥스트'에서 A팀에게 패해 그룹 위너로 데뷔하지 못한 B팀 멤버 비아이·바비·송윤형·구준회·김진환·김동혁과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새로운 얼굴 정진형·정찬우·양홍석까지 총 9명의 연습생이 출연했다.

이들 중 데뷔가 확정된 3인 바비·비아이·김진환과 나머지 6명 중 투표로 결정되는 4명까지 총 7명만이 아이콘으로 데뷔할 수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6명은 바비·비아이·김진환과 팀을 꾸려 프리매치, 콜라보레이션매치, 파이널매치 등을 통해 실력을 겨뤘다. 아이콘 멤버 후보 6명 중 4명은 심사위원 평가 30%, 시청자 투표 70%를 합산한 성적을 통해 아이콘의 멤버로 발탁된다.

지난 9월 '믹스앤매치'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아이콘 후보생들. /손진영기자 son@

시청자 투표는 한국·중국·일본의 글로벌 투표와 파이널매치 현장 관객 투표, 문자 투표, 페이스북 온라인 투표, 모바일메신저 라인 투표로 구성됐다. 방송을 지켜본 팬들과 시청자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부터 31일 자정까지 각자 응원하는 후보 4명에게 표를 던졌다.

YG는 4일 오전 0시부터 매일 한 명씩 차례로 아이콘에 합류할 멤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아이콘 합류 멤버는 구준회였다. 구준회는 한중일 글로벌 투표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1위, 일본에서 3위를 차지하며 가장 유력한 멤버로 점쳐졌다.

YG는 "지난 2012년 4월 YG 연습생으로 합류한 구준회는 약 2년 6개월간 연습생 신분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가수데뷔를 준비해왔다"며 "지난해 서바이벌 오디션 '윈'의 B팀으로 끼와 재능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5일 0시에 공개된 바비·비아이·김진환·구준회와 함께할 다섯 번째 아이콘 멤버는 송윤형으로 결정됐다. 송윤형은 한중일 글로벌 투표에서 일본 1위, 중국 2위, 한국 3위를 기록했다. 송윤형은 지난 2012년 구준회와 같은 날 YG 연습생으로 합류해 가수데뷔 준비를 해왔다. 구준회와 마찬가지로 '윈' B팀으로 활약했던 그는 '믹스앤매치'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멤버로 평가받았다.

아이콘 최종 멤버 7인은 YG 보이 그룹의 계보를 잇게 된다. 오는 15·16일 일본 나고야를 시작으로 하는 빅뱅 일본 5대돔 투어 오프닝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밴드 메이트가 새 앨범 '엔드 오브더 월드'를 발표한다. /엠와이뮤직

메이트, 3년 6개월 만에 팬 곁으로…

'엔드 오브 더 월드' 발매… 2인 체제로 활동

밴드 메이트가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

메이트의 소속사 엠와이뮤직에 따르면 메이트는 5일 정오 새 앨범 '엔드 오브 더 월드'를 발표했다.

메이트의 신보는 지난 2011년 영화 '플레이' OST 발매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메이트는 지난달 이번 앨범 수록곡 '베이비'를 먼저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이번 앨범에는 선공개곡 '베이비'를 포함해 총 6곡이 수록돼 있다. 타이틀곡은 '하루'다.

이번 앨범의 공식 활동은 오는 29·30일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리는 단독콘서트 외에는 따로 없을 예정이다. 현재 멤버 이현재의 중국 연기 활동 스케줄로 인해 부득이하게 정준일·임헌일 2인 체제로 활동하게 됐다. 메이트의 공식적인 컴백 활동은 이현재의 합류 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준일·임헌일은 "이번 활동은 둘이서 하게 됐지만 멤버 교체나 팀 이름 변경 없이 진행한다"며 "이현재가 함께 활동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데뷔해 짧은 시간에 정상급 밴드로 자리매김한 3인조 밴드 메이트는 지난 2011년 임헌일과 정준일이 군입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중단됐다. 멤버들은 제대 후 각자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해체설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세 멤버가 다시 모여 컴백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난 10월 그랜드민트페스티벌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며 해체설을 잠재웠다. /김지민기자

플라이투더스카이+거미 무대

크리스마스 합동 콘서트 'THE 끌림' 개최

플라이투더스카이(멤버 환희·브라이언)와 거미가 한 무대에 오른다.

플라이투더스카이와 거미는 다음달 23~25일 사흘간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합동콘서트 'THE 끌림'을 개최한다.

거미는 앞서 진행된 플라이투더스카이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 게스트로 무대에 올랐다. 14년 지기로 알려진 플라이투더스카이와 거미는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좋은 친구이자 음악 동료로서 이번 공연에서 최상의 무대를 보인다는 각오다. 세 사람은 이번 공연을 위해 각자의 히트곡 퍼레이드를 비롯해 기존 곡을 재해석 한 무대,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플라이투더스카이와 거미는 지난 2005년 플라이투더스카이 5집 수록곡 '사랑해요 우리'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히 환희와 거미는 "눈을 맞추지않고 숨소리만으로서로의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말할만큼 친분이 두텁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KBS2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2' 여름특집 1탄에 출연해 '별이 진다네'를 열창해 완벽한 듀엣 무대를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미는 "올해 비슷한 시기에 컴백한 이후 서로 의지하며 잘 활동하고 있다"며 "플라이투더스카이의 친구이자 팬으로서 신곡과 컴백을 많이 기다렸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 무대에 서게 돼 정말 반갑고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플라이투더스카이는 "거미는 무대와 객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특히 관객과 호흡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번 콘서트를 함께 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의 합동 콘서트 'THE 끌림'의 티켓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인터파크·예스24 등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김지민기자

그래도
살만한
인생
tvN 주년 특별기획
미생
임시완 | 이성민 | 강소라 | 강하늘 | 김대명 | 변요한 | 신은정 그리고 이경영
기획 tvN 제작 N°3 NUMBERTHREE PICTURES
매주 [금토] 저녁 8시 30분 tvN 방송

치밀한 디테일의 웰메이드 드라마

tvN 금토드라마 '미생'

대본·연출·연기 3박자 '완벽 호흡'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 장면도 설정
소품으로 메모지까지 치밀하게 준비

tvN 금토드라마 '미생'이 웰메이드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은 방영 전부터 원작 캐릭터와 출연 배우들의 높은 '싱크로율(일치율)'로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제작진에 따르면 '미생'은 평균 시청률 4.6%, 최고 시청률 6.0%(닐슨코리아·유료플랫폼 기준)로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높은 성적을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인기의 바탕에는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탄탄한 대본과 사실감 넘치는 연출, 배우들의 호연이 있다.

특히 실제 사무실을 드라마에 그대로 옮긴 듯 한 세트장은 극에 리얼리티를 더했다. 주인공 장그래가 속한 영업3팀을 비롯해 영업1·2팀, 영업부장실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13층 사무실 공간에 마련된 세트와 이 공간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경기도 남양주 세트장에서 촬영된다. 이재문 PD는 "서울시의 모습을 담기위해 이 곳을 촬영 장소로 결정했다"며 "주중에는 세트장에서, 주말에는 이곳 서울스퀘어 사무실에서 촬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스퀘어에 있는 촬영장의 디테일은 실제 사무실을 방불케 할 정도다. 장그래의 자리에는 손으로 직접 쓴 메모지와 각종 서류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 김동식 영업3팀 대리 자리에는 믹스커피 봉지와 치약·칫솔이 한 데 꽂혀 있어 그의 수더분한 캐릭터를 보여준다.

tvN 금토드라마 '미생'의 출연진이 극중 오상식 영업3팀 과장의 자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 E&M

오상식 과장 역의 이성민은 5일 오후 서울 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윤정 작가가 대본을 자세히 쓰기도 하고 김원석 감독도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며 "극중 인물들이 주고 받는 대사에 어떤 프로젝트가 등장하면 TV 화면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프로젝트 내용이 담긴 소품 서류가 책상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의 '디테일'은 세트와 소품에서 끝나지 않는다. 흡연 장면이 방송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생'에는 담배가 자주 등장한다. 김 감독은 "이 드라마는 2년 전으로 설정돼 있다. 당시에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었다"며 "직장인들은 담배 피우는 시간에 주로 이동을 한다.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태우며 잠깐 대화를 나눈다. 실제 직장인들이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술·담배 장면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상식 과장은 담배를 끊었지만 냄새를 맡으며 참는 설정이고 김동식 대리는 담배 냄새만 맡고 버리는 설정"이라며 "자원팀의 한석율·장백기도 다 흡연자고 장그래와 안영이는 비흡연자"라고 덧붙였다.

드라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김 감독의 치밀함에 배우들은 "진짜로 출근하는 기분으로 촬영장에 온다"고 입을 모았다.

임시완은 "진짜 회사원이 됐다는 생각으로 출퇴근을 한다. 다만 주 5일 근무자가 아니라서 주말에도 촬영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성민은 "아침마다 점심 메뉴를 고민하며 출근한다. 하루 쉬고 촬영하러 오는 날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어제는 김대리가 먼저 퇴근해 짜증났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한편 '미생'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한 작품 한 지붕 ☆

'미녀의 탄생' '모던파머' '내일도 칸타빌레'
끼워팔기·동료애, 아슬아슬 줄타기

SBS 주말극 '미녀의 탄생' 한예슬

YG패밀리와 SM타운처럼 가요계에서 소속 아티스트를 하나로 묶은 단어는 이미 익숙하다.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들에게도 이와 같은 '한 식구'의 개념이 있다.

키이스트 소속인 한예슬과 왕지혜는 SBS 주말극 '미녀의 탄생'의 라이벌이다. 한예슬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사금란(하재숙)을 버리고 전신 성형 수술을 감행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라 역을 맡았다. 완벽한 미녀지만 내면은 아줌마인 반전 캐릭터다. 왕지혜는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교채연 역으로 분해 세련된 여성미를 자아낸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신과의 결혼을 앞둔 이강준(정겨운)이 사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활약을 예고했다.

SBS 주말극 '모던파머'에는 FNC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4명이 출연한다. 그룹 FT아일랜드 이홍기와 배우 곽동연은 극중 밴드 엑소(엑설런트 소울즈)의 리더와 막내로 열연한다. 이홍기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배추 농사를 시작한 철없고 방정맞은 이민기, 곽동연은 의지도 끈기도 생각도 없는 청춘 한기준으로 분해 극의 몰입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룹 AOA 민아는 스스로 "벽화 봉사하러 다니는 여대생"이라고 소개하지만 남모를 음모를 숨기고 있는 미스터리한 이수연 역을 맡았다. 그룹 엔플라잉의 김재현은 강윤희(이하늬)의 배다른 남동생 강홍구로 분해 이민기와 대립한다.

심 엔터테인먼트 소속 주원과 배민정·이주형은 KBS2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에 출연 중이다. 주원은 잘생긴 외모와 까칠한 성격, 허당스러운 면이 어우러진 차유진 역으로 여심을 자극하고 있다. 배민정은 유일락(고경표)과 바이올린 연주 경쟁을 해 강한 인상을 남긴 신예다. 작품에서 바이올린에 자부심 있는 엘리트 정시원 역을 맡았다. 털털한 성격의 그는 유일락과 '썸'을 타는 중이다. 이주형은 모델 출신이며 '내일도 칸타빌레'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그가 맡은 구선재는 오보에 수석이자 정시원의 동료다.

한 관계자는 "끼워팔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신인의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배우 입장에서는 같은 소속사 동료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현장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효진기자 jeonhj89@

SBS 주말극 '미녀의 탄생' 왕지혜.

KBS2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 주원.

SBS 주말극 '모던파머' 이홍기.

청춘★, 스크린서도 맹활약

도경수·최우식·김소은 깊이 있는 감정 전해

청춘스타들이 스크린에서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현기증'의 김소은(사진 오른쪽), '거인'의 최우식(가운데), '카트'의 도경수(왼쪽)가 그 주인공들이다.

김소은은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서 배우 송재림과 가상 부부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마의' 등에서 밝고 단아한 캐릭터를 연기한 김소은은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서 거침없고 당돌한 모습의 반전 매력으로 사랑 받고 있다.

오는 6일 개봉하는 영화 '현기증'에서는 깊은 감정 연기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현기증'은 평범했던 가족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난 뒤 급격히 파괴돼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 김소은은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엄마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여고생 꽃잎 역을 맡았다.

영화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캐스팅된 김소은은 오디션 현장에 교복을 입고 나타날 정도로 집념과 애정을 나타냈다. 하루 종일 와이어에 매달려 있고 추운 세트장에서 5시간 넘게 차가운 물속에서 잠수해야 했음에도 힘든 내색 없이 열연을 펼쳤다.

최우식은 '폼나게 살거야' '옥탑방 왕세자' 등의 드라마로 귀여운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을 갖춘 배우로 사랑 받아왔다. 지난달 27일 방영을 시작한 MBC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에서는 '칼퇴근'을 고집하는 엘리트 검사 이장원 역을 맡아 최진혁, 백진희, 최민수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거인'에서는 성장통을 겪을 17세 나이에 인생의 고통을 먼저 배우게 되는 소년 영재를 연기했다. 스크린 첫 주연작이다. 깊이 있는 내면 연기는 물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연기했다. 이 작품으로 최우식은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했다.

그룹 엑소 멤버 도경수는 지난 9월 종영한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한강우 역으로 연기자 데뷔 신고식을 치렀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카트'에서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고등학생 태영 역을 맡았다.

이번 영화에서 도경수는 염정아, 지우 등과 호흡을 맞췄다. 반항심 가득한 고등학생의 섬세한 감정 묘사로 가슴 뭉클한 드라마를 더했다는 평가다. 염정아는 "도경수의 엄마여서 행복했다. 처음 하는 연기였는데도 잘 해줘서 고마웠다"고 칭찬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부부가 된 황정민·김윤진

'국제시장'… "자연스럽게 몰입"

배우 황정민, 김윤진이 오는 12월 개봉하는 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국제시장'에서 황정민, 김윤진은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 시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변하는 인물인 덕수와 영자를 연기했다. 1963년 일자리를 찾아 각각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로 독일로 떠난 두 사람은 첫 만남을 시작으로 사랑을 키우며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간다.

김윤진은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덕수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영자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황정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다"며 "첫 카메라 테스트 때부터 황정민은 덕수 그 자체였다.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정민도 "김윤진의 연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완벽했다. 티 없이 맑은 사람이라서 함께 연기할 때 서로 좋은 기운을 주고받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5일 '국제시장' 측이 공개한 덕수와 영자의 커플 스틸은 영화 속 두 배우의 호흡을 잘 보여준다. 두근거리는 첫 데이트 현장부터 댄스파티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인생의 파트너로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결혼식,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꼼짝없이 국민의례를 해야 했던 웃지 못할 해프닝 등을 만날 수 있다.

'국제시장'은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5년 만에 발표하는 신작이다.

/장병호기자

김우빈 극장가 장악할까?

'기술자들' 12월 개봉

배우 김우빈이 주연을 맡은 영화 '기술자들'(감독 김홍선)이 오는 12월 개봉을 확정했다.

'기술자들'은 동북아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인천 세관에 숨겨진 검은 돈 1500억을 제한시간 40분 안에 털기 위해 모인 기술자들의 역대급 비즈니스를 그리는 범죄 액션영화다. 김우빈을 비롯해 김영철, 고창석, 이현우, 조윤희, 임주환 등이 출연한다.

김우빈은 극중에서 금고털이는 기본이고 위조와 작전 설계까지 만능인 멀티플레이어 지혁 역을 맡았다. 고창석이 지혁의 든든한 지원군인 인력 조달 기술자로, 이현우가 천재 해커 종배 역으로 함께 했다.

개봉일 확정과 함께 티저 예고편도 공개됐다. 영화 속 기술자들의 젊은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우빈 특유의 여유로움, 고창석의 코믹함, 이현우의 날 선 눈빛 등을 만날 수 있다. 영화 속 세 배우의 호흡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다.

'기술자들'은 2012년 '공모자들'로 제33회 청룡영화상 신인상을 수상한 김홍선 감독이 연출했다. 영화는 국내 개봉 전 중국, 홍콩(마카오), 대만, 필리핀 등 4개국에 선판매를 확정지었다.

/장병호기자

날씨

생선초밥에 왜 고추냉이를 넣을까?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생선초밥에는 대부분 고추냉이가 들어있다. 톡 쏘는 매운 맛 때문에 생선초밥이 더욱 맛있지만 매운 연기가 코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다면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생선초밥과 고추냉이는 반 강제적 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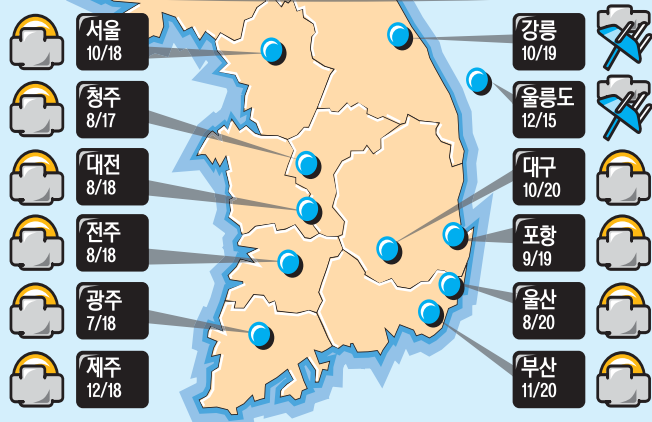
생선회도 고추냉이와 함께 먹는다. 하지만 생선회를 먹을 때는 선택이 가능하다. 고추냉이가 싫으면 안 먹으면 그뿐이다. 그러나 생선초밥은 다르다. 굳이 생선 조각을 들어 밥 사이에 붙은 고추냉이를 제거해야 한다.

호불호가 분명하게 엇갈림에도 먹는 사람 선택에 맡기지 않고 생선초밥에 고추냉이를 집어넣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금은 고추냉이를 맛으로 먹는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하고 매운 맛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되는 향신료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고추냉이가 들어간 계기는 맛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

식중독 예방 소독제였다. 와사비(わさび)라고 하는 고추냉이는 옛날부터 일본에서 약초로 사용했다. 매운 맛과 특유의 휘발성분이 살균작용을 했기에 자칫 생선초밥이 일으킬 수 있는 식중독을 막으려고 고추냉이를 넣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생선초밥 만들 때 신선한 재료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만들지만 일본에서 생선초밥이 대중적으로 퍼졌던 19세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냉장고가 없었기에 얼음으로 짧은 시간 보관했으니 초밥 재료로 쓸 생선이 상하기 일쑤였다. 살짝 상한 생선이 식중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상한 맛과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해 고추냉이를 넣었던 것이다.

때문에 예전 일본에서는 초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생선의 기름기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고추냉이 사용량이 달랐다. 이를테면 오징어는 기름기가 적으니까 고추냉이를 적게 넣은 반면 전어나 고등어, 전갱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으로 초밥을 만들 때는 고추냉이를 듬뿍 넣었다. 등 푸른 생선은 기름기가 많아서 다른 생선보다 쉽게 상하기 때문에 고추냉이를 많이 사용해서 식중독을 예방하고, 또 생선의 비린 맛을 제거했던 것이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7					1
					1		9	
	4	1					6	
	1		5	6				
5		8		7		4		3
				3	4		5	
	2					9	1	
	9		4					
6					8		7	

1			5	3				4
					4			
5	8	4		1			6	
	3			2	1			
		2		7		6		
			9	6			5	
	5			9		3	4	7
			2					
9				4	8			2

스도쿠 정답

3	8	2	7	9	6	5	4	1
7	5	6	3	4	1	8	9	2
9	4	1	2	8	5	3	6	7
4	1	3	5	6	2	7	8	9
5	6	8	1	7	9	4	2	3
2	7	9	8	3	4	1	5	6
8	2	7	6	5	3	9	1	4
1	9	5	4	2	7	6	3	8
6	3	4	9	1	8	2	7	5

1	2	6	5	3	9	7	8	4
3	7	9	6	8	4	1	2	5
5	8	4	7	1	2	9	6	3
6	3	5	8	2	1	4	7	9
8	9	2	4	7	5	6	3	1
7	4	1	9	6	3	2	5	8
2	5	8	1	9	6	3	4	7
4	1	3	2	5	7	8	9	6
9	6	7	3	4	8	5	1	2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부동산 동업하다 정리, 뭘 해야할까
기술직 선택하면 4년후 좋은 결실

알곡이 58년 10월 4일 양력 19시

Q 메트로 신문에 연재되는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통해 사업이나 진로 결정, 부부관계 문제 등등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사례를 읽다 보니 제 사주도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남자이고 올해 57세 10월 4일 양력 저녁 7시쯤이 저의 생일입니다. 부동산 사업을 동업으로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망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하며 인생의 빛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는지 궁금합니다. 입바른 소리로 희망을 주는 말보다는 지금보다 더 나쁘더라도 염려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십시오.

A 태어난 월(月)에서 월지(月支)는 사주의 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귀하는 정관격(正官格)사주로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며 명예로움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비겁(比劫:나와 동급)을 극(剋)하여 친구를 잘 만들지 않으며 주어진 일에 절제력은 있습니다.

생활이 단조롭고 규칙적이며 보수적인 갑목(甲木)사주가 금기(金氣)가 많아 금극목(金克木:도끼가 나무를 쪼갬)하여 현재 대운에서 직장과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사회활동이 병지(病地)에 있으며 문서운에 충살(沖殺)을 받아 부동산에서 실패를 하게 됐지만 태어난 시(時)에서 돈을 만드는 역할을 하여 말년이 좋습니다. 재물은 앞으로 4년 후부터 승발하게 되니 진로는 부동산 업종의 기술직으로 직종을 택해보세요. 사주팔자와 운이 좋아야 만사가 형통하겠지만 사람의 됨됨이나 성정이 강하여 타협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기술직이 전망이 밝겠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 까지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니 남은 동안 당분간은 기술을 배우며 후일을 기약하십시오.

부부사이는 간여지동(干與支同)이라는 같은 성분이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는 형국이어서 화목지가 못하므로 가화만사성이란 말을 잊지 말고 귀하가 한발 물러서서 대해야 하겠지요. 또한 처가 잔병치레를 할 수 있으니 큰 병이 되기 전에 진찰을 받아보시고 생일지가 지살(地殺)로 내심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으나 생활에서는 안주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나돌게 됩니다. 바쁘게 다니는 역마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인데 안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복성귀인(福星貴人)이 가득하여 2019년 지나 부귀장수가 말년에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6일 (음 윤 9월 1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욕심 부리면 화 자초한다. **60년생** 정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법~. **72년생** 고집 부리면 주변 눈총이 따갑다. **84년생** 상대방의 역습을 조심할 것.

49년생 화난 가족 달래는데 신경 써라. **61년생** 기다리던 기회는 온다. **73년생** 직장인은 일마다 대박이 터져 기세등등~. **85년생** 후발주자가 추월한 격이다.

50년생 믿었던 자녀가 기대에 부응한다. **62년생** 자영업자는 급전이 필요할 듯. **74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6년생** 지레 겁먹고 뒷걸음치지 말라.

51년생 현실을 똑바로 보고 말하라. **63년생** 남쪽에 가면 웃을 일 생긴다. **75년생** 상사의 마음을 잘 읽어라. **87년생** 직장인은 과분한 칭찬에 어깨 무겁다.

52년생 동업문제는 점점 복잡해진다. **64년생** 올 것이 오니 대비하라. **76년생** 배우자의 질투가 기분 좋게 한다. **88년생** 뒤돌아 웃을 일이 생기니 기대하라.

53년생 이웃에겐 겸손하게 대처할 것. **65년생** 멀리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 **77년생**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판국~. **89년생** 꾀돌이는 제 꾀에 넘어간다.

42년생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54년생** 약속 시한 넘기지 않도록~. **66년생** 생기 잃은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격이다. **78년생** 진전이 없는 일은 포기할 것.

43년생 가족 아픔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라. **55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67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79년생** 빛나는 성과로 존재감 보여준다.

44년생 자손에 경사가 생긴다. **56년생** 가족과 충돌은 일단 피하라. **68년생** 결심한 일은 시행하면 좋다. **80년생** 변수가 많으니 끝까지 최선 다하라.

45년생 길몽은 현실화 되니 기대하라. **57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69년생** 아랫사람에 면박 주는 일은 삼가라. **81년생** 지금 그대로만 하면 충분하다.

46년생 꿈수 부리면 궁지에 몰린다. **58년생**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 **70년생** 뜻을 이루려면 진실게임은 불가피하다. **82년생** 본업에만 충실할 것.

47년생 모처럼 부부외출이 즐겁구나. **59년생** 아픈 과거는 시간이 약이다. **71년생** 포기 모르는 그대가 챔피언~. **83년생** 상사 말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

삼성 화끈한 반격…넥센 홈 목동 간다

윤성환 호투 속 나바로·이승엽 홈런 가동

2014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삼성 라이온즈 대 넥센 히어로즈 경기에서 넥센을 7대 1로 꺾고 승리한 삼성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라이온즈가 홈런포를 앞세워 넥센 히어로즈를 제압했다.

삼성은 5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승제) 2차전에서 선발 윤성환의 호투 속에 야마이코 나바로와 이승엽이 홈런포를 가동하며 7-1로 넥센 히어로즈를 이겼다. 이로써 삼성은 전날 1차전에서 4안타 2득점의 빈공에 시달리며 2-4로 패했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2차전은 윤성환과 헨리 소사의 선발 대결에서 윤성환이 완승을 거둔 경기였다.

삼성 선발 윤성환은 직구 최고 스피드가 141㎞에 불과했지만 섬세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낙차 큰 커브와 예리한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섞어 던져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뽑으며 4안타 1실점으로 넥센 타선을 봉쇄했다. 윤성환은 2차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승리를 이끌어 넥센을 첫 한국시리즈로 견인했던 헨리 소사는 이날도 최고시속 154㎞의 강속구를 뿌리며 윤성환에 맞섰다.

그러나 직구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피칭 때문에 2⅔이닝 동안 홈런 두 방을 포함해 6안타와 사사구 3개로 6실점하고 조기 강판됐다.

2차전 삼성 공격의 선봉장은 나바로였다. 1차전에서 삼성의 유일한 득점인 2점 홈런을 터뜨렸던 나바로는 2차전에서도 1회 말 선두타자로 나서 좌전성 2루타를 치며 포문을 열었다.

타격감이 살아난 삼성 타선은 2회에도 헨리 소사를 압박했다.

박해민의 볼넷으로 만든 2사 3루에서 타석에 나선 나바로는 볼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152㎞짜리 몸쪽 직구를 통타해 좌측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2점홈런을 터뜨렸다.

3회에는 이승엽의 방망이가 폭발했다. 이승엽은 이날 3-0으로 앞선 3회 2사 2루, 상대 선발 헨리 소사의 초구 시속 147㎞짜리 직구를 잡아 당겨 우중간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2013년 한국시리즈에서 홈런을 치지 못했던 이승엽은 올해 한국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 홈런을 추가하며 포스트시즌 최다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서게 됐다.

삼성은 계속된 공격에서 몸 맞는 공으로 출루한 박해민이 2루 도루에 성공하자 이지영이 좌적 적시타로 불러들여 6-0으로 달아났다.

삼성은 윤성환이 7회까지 깔끔하게 막고 내려간 뒤 8회 안지만, 9회 임창용이 등판해 승리를 굳혔다.

한편 한국시리즈 3차전은 7일 넥센의 홈그라운드인 목동구장에서 열린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5일

■ 대구

넥센	000	100	000	1
삼성	123	000	01X	7

△승 = 윤성환(1승) △패 = 소사(1패) △홈런= 나바로 2호(2회2점) 이승엽 1호(3회 2점·이상 삼성) 박병호 1호(4회 1점·넥센)

유럽파 태극전사 몸값 이상 '슛'

손흥민 멀티골 '원맨쇼'… 이청용 연속 공격포인트

유럽에서 태극전사 공격수들이 맹위를 떨쳤다. 손흥민(22·레버쿠젠)은 멀티골을 터뜨렸고 이청용(26·볼턴)은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둘은 나란히 중동 원정에 나설 축구 국가대표 '슈틸리케 2기'에 뽑혔다. 대표팀 공격에 힘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골잡이 손흥민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2·3호골을 한꺼번에 터뜨렸다. 손흥민의 UEFA 챔피언스리그 첫 골은 지난달 2일(한국시간) 벤피카(포르투갈)와의 C조 2차전 홈 경기에서 넣은 결승골이다.

손흥민은 5일 제니트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C조 4차전 원정경기에서 후반 23분과 후반 28분 잇달아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달 19일 슈투트가르트와의 독일 분데스리가 원정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이후 5경기 만의 골이다. 소속팀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원맨쇼에 힘입어 제니트를 2-1로 꺾었다. 레버쿠젠은 승점 9를 기록해 모나코(5점)·제니트·벤피카(이상 4점)를 따돌리고 C조 선두를 지켰다.

볼턴의 이청용(왼쪽), 레버쿠젠의 손흥민. /뉴시스

전반 18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침투하는 벨라라비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한 손흥민은 기세를 몰아 초반부터 활약을 예고했다. 전반 36분 역습 기회를 맞은 손흥민은 단독 돌파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상대팀 다니의 백태클에 넘어져 옐로카드를 선사했다.

0-0의 균형은 후반 23분 손흥민에 의해 깨졌다. 레버쿠젠은 중원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았다. 벨라라비가 패스를 받았고 약속된 플레이인 듯 손흥민에게 슬쩍 볼을 내줬다.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지체 없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제니트의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의 두 번째골은 5분 뒤에 터졌다. 키슬링의 스루패스로 노마크 찬스를 잡은 손흥민이 이번엔 왼발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제니트는 후반 44분 호세 론돈이 한 골을 만회했다.

이와 함께 볼턴의 이청용은 6경기 연속 풀타임 선발 출장하며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이청용은 이날 영국 볼턴의 마크론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디프시티와의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9분 터진 리암 피니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다. 지난 1일 노리치와의 원정경기에서 득점한 데 이어 두 경기 연속으로 공격포인트를 작성했다.

그 동안 이청용은 소속팀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실력은 좋으나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했다. 이청용은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논란을 잠재웠다. 이날 경기에서 볼턴은 카디프시티를 3-0으로 완파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백규정·고진영, KLPGA 신인왕 격돌

19세 동갑내기, ADT캡스… 김민선도 가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동갑내기 백규정(19·CJ오쇼핑·**사진 왼쪽**)과 고진영(19·넵스·**오른쪽**)이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신인왕 타이틀을 놓고 격돌한다.

막바지로 돌입한 이번 시즌 중 남은 대회는 7일 개막하는 이 대회와 14일 열리는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두개 뿐이다.

경남 김해의 롯데스카이힐 김해 컨트리클럽(파72·6551야드)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ADT캡스 챔피언십에서는 신인왕을 굳히려는 백규정과 역전을 노리는 고진영의 대결이 가장 큰 관심사다. 백규정은 신인왕 포인트 2162점으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고진영은 2138점으로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총상금 5억원에 우승 상금 1억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190점을 획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신인왕 포인트 3위(1977점)인 김민선(19·CJ오쇼핑)도 아직 희망이 있다.

김민선은 아직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매 대회 꾸준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다면 시즌 마지막 대회인 포스코 챔피언십(우승시 신인왕 포인트 230점)에서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상위권 선수들을 모아 67명만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는 박세리(37)도 필드에 나선다. 박세리는 지난 2012년 9월 KDB대우증권 클래식 이후 2년 만에 국내 대회 우승컵을 노린다. 올 시즌 상금왕과 대상을 확정한 김효주(19·롯데)는 출전하지 않는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5일

SK	23	11	17	21	**72**
KT	11	17	12	21	**61**
모비스	14	16	21	22	**73**
인삼공사	18	23	19	9	**69**

프로배구 전적 5일

GS칼텍스	3	1	도로공사
우리카드	3	2	OK저축은행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